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이강혁
편집인겸 주간 지재운
편집장 이상필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538호 〈주간〉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년 4월 10일 (화요일)

곧은 뜻 잇고 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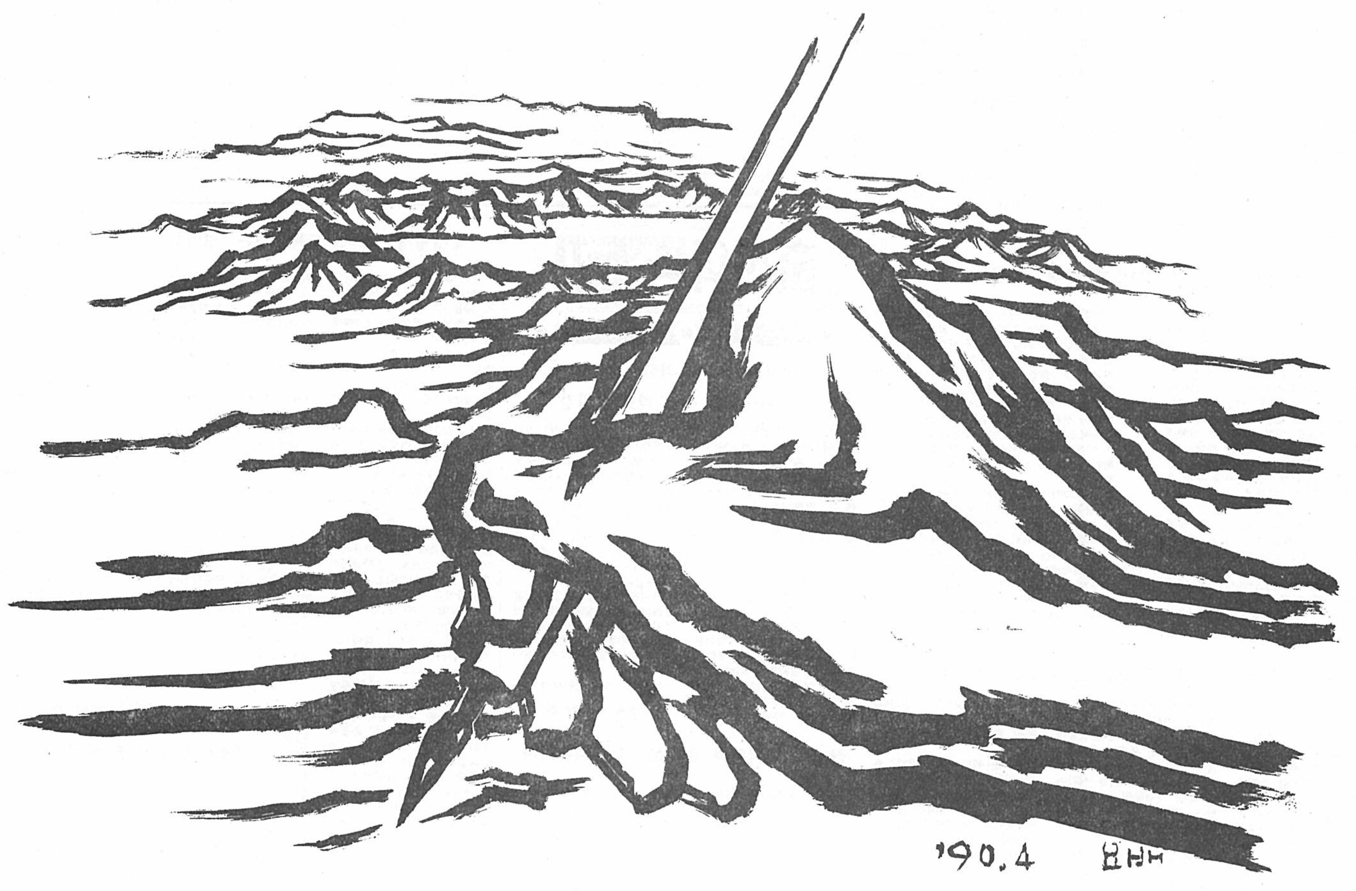


그림 : 화가 강요배

외대학보 창간 35주년 기념사

도대체 이땅에 진정한 참언론이 있어 왔는가。

이 나라에서 한시라도 눈멀고 귀멀고 입막힌 세마리의 원숭이 인형꼴이 아니었던 사람이 있는가。

지금은 민족언론이었다 자처하는 일제하 제도언론은 총독부의 붓이되어 순결한 땅의 젊은이와 딸들을 총알받이로, 정신대로 전장으로 내몰지 않았던가。 우러러 마지않는 천황의 시녀로 내선일체를 그렇게 열렬히 우겨댔던 이들은 또 누구인가。

외세에 의한 완전하지 못했던 독립은, 그리고 이내 허리가 잘려버린 조국의 현실은 이 땅에 참언론이 조금이라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형제를 형제라 하지 못하고, 내나라를 내나라라 말하지 못하게 했던 허울좋은 「반공」과 「안보」의 논리는 아직까지도 진실을 알고자, 말하고자하는 몸부림을 끈질기게 짓밟고 있다。

7백여 언론인의 붓을 빼았았던 80년 언론통폐합, 언론기본법 제정, 그리고 기막힌 보도지침의 기억이 지금 또다시 프레스카드발급과 경향신문, 제주신문, KBS에 대한 탄압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잘리우고 잘리워 이제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혀를 가지고 어떤이는 이런 말을 했다。

『이제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념의 시대가 아닌 「화합과 안정의 시대」에서 서른다섯 장년의 생일을 맞는 외대학보의 심경은 그리 편치 못하다。

진정한 참언론의 부재속에서 그나마의 대용물이 되기위해 고민했던 기자들의 노력이 제작중지로, 배포금지로, 군데군데 이가 빠진 「벽돌신문」으로, 그리고 편집장의 구속으로 바뀌어져 나오고 신문을 그 주인인 독자대중에게 환원하여 겸허한 평가를 받고자 했던 의지가 「운동권의 기관지이었음을 반성하고 순수아카데미즘에 입각한 단순한 홍보지로 거듭나려 함」으로 매도 당하는 현실 때문만은 아니리라。

온갖 사이비 「민족언론」, 「민주언론」이 난무하는 세태속에서 참언론 건설의 과제를 부여받은 외대학보는 제도언론의 「자유분방한 무관의 제왕」이라는 부르조아적 언론관을 민중주체의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타파해 나갈 것이다。

진정한 언론의 자유는 자주·민주·통일 조국의 실현속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각인한다。

이제 자유언론을 딛고 민중언론을 넘어 자주언론의 새시대를 선포한다。

창간 35주년 기념특집호 안내

외대논단 북한언론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 〈5면〉

기동취재 "언론출판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습니다" 〈8면〉

특집면(6~7면)

'90 외대학보 매체혁신 중간 평가

〈투고〉최근 대학언론의 대중성 되찾기 움직임을 살펴본다

〈서른다섯살의 고백기〉 "나 외대학보는…"

〈만화〉 서울지역대학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4단만화 주인공들의 축하방문

□ 주제글모음 발표(12면)

주제 : 4월 그 가슴으로

사 설

창간 35주년을 맞이하여

질곡의 벽 허물고 더욱 굳건히 총 매진하자.

1990년 4월11일, 바로 내일은 1955년 4월11일 월간 타블로이드판의 국한문 혼용「외대학보」창간호가 발행된지 35년째가 되는 날이다.

강산이 세번하고도 반이나 변하는 동안 민족의 역사와 외대의 역사에 명(命)을 같이했던 외대학보는 이제 주간12면, 발행부수 2만부, 전체기자수32명이라는 체제속에 서른다섯나이에 부끄럽지 않은 어엿한 장년으로 우뚝섰다. 그러나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지배자들의 논리가 있고 분단의 현실이 있기에 아직도 외대학보는 그 탄생 첫해에 겪었던 산고의 고통만큼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이 사실이다. 2백50만부의 발행부수를 가진 전국의 대학신문에 대한 지배자들의 탄압은 89년 5·6조치이후로 계속 그 도를 높여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탄압의 형태를 학교당국과 학생기자들간의 분열, 대립으로 변화시켜 수원대학보기자 5인의 퇴학, 무기정학등의 징계처분, 한대신문사의 제작중지, 경상대신문사의 편집장 해직요구등 전국적 차원의「대학언론 분쇄음모」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작년 외대학보사와 서강학보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있는「광고질서 회복운동」도 학생기자명의로 학교당국에 배달된 중상모략, 비방협박조의 괴문서와 정체불명의 참고자료(학생들이 주장하는 광고대행사는 빨갱이회사이다라는 내용)등으로 인해, 단지 악덕광고대행사의 횡포차원이 아닌 민주와 반민주의 한판싸움으로 확대되어 가고있는 것이다. 끝없는 침묵과 가식으로 일관, 정권의 충직한 하수인역할을 하고있는 제도언론과 그들에의한 대학내 사제간의 원하지 않는 불신과 반목, 나아가 학생과 학교당국이「적」의 관계에서 고민해야 하는 현실속에서 이제 또다시 외대학보가 해나가야할 일은 너무도 자명하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분단조국하의 선전일꾼의 역할, 낭만적 자유주의 언론관, 장래일간지 기자의 예비실습장이라는 오명을 철저히 씻어내고 외대인의 다양한 실천적 활동들을 상호간의 일체감 속에「외대」의 울타리속에 묶어내어 사회발전과정의 주체로서 올바르게 나서게 해야한다. 단순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조합이 아닌, 철저하게 대중에 입각한 선진적, 민중적 참언론상으로서의 외대학보는 위상을 가질것이다.

이후 창간36주년, 아니 1백주년을 맞을 때 그 역사의 심판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문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바로 외대학보가 외대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이기 때문이다.

「4월투쟁」을 국민과 함께 하자

서울·용인 양캠퍼스 총학생회의 정치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른바「4월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용인 총학생회의 경우 지난 3일「4·3항쟁 기념식 및 반 민자당 투쟁선포식」을 열어 3백여명의 학우들이 2시간여에 걸친 시위를 벌였었다. 서울캠퍼스에서도 어제「민자당 일당 독재분쇄 및 전투적 노·학연대를 위한 애국외대 실천대회」후 2시간여동안 10여명의 학생이 부상당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여졌다. 3당야합이후 이렇다할「반 민자당 투쟁」을 전개하지 못했던 양캠퍼스 총학생회가 이제 등록금 투쟁을 일단락짓고 대정부투쟁에 나선것이다. 그동안「너무 늦게 시작한다」는 재촉을 하고 싶을 정도로 외대생은 민자당 규탄에 동참하길 고대해왔다. 이는 공공연하게 들을 수 있는「왜 우리학교는 데모안하지」라는 말에서, 또 어제 집회에 1천여명의 학생이 참여했다는 사실에서 절대 오판(誤判)이 아님을 알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쟁이 대학가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는 점도 지난주 보궐선거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대구 서갑구에서 민자당 문희갑 후보의 갖가지 부정이 동원된 아슬아슬한 당선과 충북 진천·음성에서 민주당(가칭) 허탁 후보의 압승은 민자당에「반대」한다는 국민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었다. 선거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민자당내의 분열상은 이러한 국민의 뜻이 옳은것임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노태우·김영삼의 한계인 것이다.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민자당의 앞날을 점칠수 있다. 국민의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힘으로 스스로를 지탱해왔던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와 민자당이 겪어야할 결과는 다를 수 없다. 구태여 투쟁 주최측에서「총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외대생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민자당은 분쇄될 수밖에 없다. 전국민도 이에 동참할테니 말이다.

직원들의 업무단축으로 피해당하는 학생을 생각해야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허울아래 너무도 많은 폭력을 당하며 살고 있다. 넓게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여러가지의 것들 중에서 과소비로 인한 위화감 조장등 사회 전반에서 수다하게 벌어지고 있는 민주속의 폭력의 본보기들이 있는 반면에, 가깝게는 우리 외대 내에서도 허다하게 볼 수 있는게 그것들이다.

그 예로는 먼저, 학사 업무내용의 일부를 들수 있겠다. 대부분의 학사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불친절함에는 익숙해져 있는 바이고, 누구를 위한 민주행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교내직원들은 주5일 근무를 이루어 냈다. 그리고 언제 부터인가 주5일 근무중에서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의 업무 또한 대부분의 부처에서 하지 않고 있다. 점심 시간이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야만 한다. 그리고 1시 이후부터 정확하게 근무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드물다.

둘째로, 도서관 참고 열람실이 토요일 근무를 하지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은 학생이 주인으로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 (하물며, 일요일까지도) 다른 직장들 같으면 휴일에 직원들이 일을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그렇지만 도서관은 모든 학생들이 휴일없이 찾아드는 곳이다.

누구를 위한 민주화인가? 소수 직원의 업무단축으로 다수의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본이 몇인가? 총학에서 또한 이런일에 대처가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좀더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우리외대 내에서 만이라도 전 학우들이 진정한 민주 분위기속에서 학문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서양·독일어3 박동오〉

명수당 明水塘

최 재 철
〈일본어과 교수〉

「산길을 오르며 이렇게 생각했다. 지식(知)을 앞세우면 모가난다. 감정(情)에 휩쓸리면 떠내려간다. 고집(意)을 부리면 답답하다. 여하튼 이세상은 살기 어렵다. 살기어려움이 더해지면 살기 쉬운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진다. 어디로 이사를 가도 살기 어렵다고 깨달았을 때, 시(詩)가 생겨나고 그림(畵)이 그려진다」

이글은 일본 근대가 낳은 대표적인 작가 나츠메 소오세키(夏目漱石)의 예술관·인생론을 피력한 소설「풀베게(草枕)」(1960년)의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이다.

「어떻게 사느냐」를 한마디로 말하기어려운 일이지만 이 작가는 지성·감정·의지의 조화가 필요하며 삭막한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문학 예술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교단에 선 사람으로서 이와같은 종류의 인생론 한마디를 꼭 하게되는 때가 바로 사은회 자리이다.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 내차례가 돌아오면 무슨 말을 해줄까 늘 고심하곤 한다. 연륜과 생각이 아직 짧은 탓이리라. 대개는 학생들과의 대학4년을 돌아보고, 열심히 어떻게 살라는 당부와, 행운이 있으라는 축복의 말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런데「어떻게 살라」는 부분이 문제다. 해마다 관점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는가 하면,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즉석에서 말할 때도 있다. 최근의 예를들면,「여럿이서 혼자서 산다」,「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시나 소설 한편 읽는 여유를 갖자」등이다. 여럿이서 혼자서, 더불어 사는 즐거움과 홀로서도 호뭇함을 맛보며사는 삶. 모든 일은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고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이 있으며 다 적절한 때가 있는 법이고, 시 한수 소설 한편은 우리 삶의 윤활유다라는 식이다.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어우러져 나누어 가지며 더불어 사는 지혜와, 이 광막한 우주공간에 한점 먼지와도 같이 홀로 서있는 외로운 존재가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며 사는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언젠가부터 이 한마디「여럿이서 혼자서」사는 세상이란 말을 생각하게 됐다. 여럿과 혼자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뤄야 하고, 진정한 자기만족과 자존심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사의 시류에 휩쓸려 둥둥 떠다니는 줏대없는 인생이 아니라 생의 저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뿌듯함을 느껴야 하리라.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러나는 걸까. 삶의 어려움은 이 점에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마주칠때 시가 떠오르는 게다. 여기서 현대시조(時調) 한수 소개하고자 한다.

「여럿이서 혼자서」 사는 세상

내 오늘/서울에 와
만평적막(萬坪寂漠)을 산다

안개처럼/가랑비처럼
흩고 막 뿌릴까보다

바닥난 호주머니엔/주고 간
벗의 명함(名啣)

(서벌 시조「서울1」)

짧은 시조 한편의 완결성이 돋보이는 이 작품에서 시인은 대도회 서울사람들에게서 느끼는 외로움과, 현대산업사회의 소외감, 만평이나 되는 적막감을 노래하고 있다. 삭막한 공해의 도시 서울에는 과연 만평적막을 풀어줄 벗은 없는가. 의례껏 명함한장 삐죽 내밀고는 다음에 보자며 그냥 총총걸음으로 헤어지지 않고,「우리 어디가서 쌀 막걸리라두 한잔 하세」라며 반기는 여럿이 살아 숨쉬는 도시, 절로 시가 읊어지고 그림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여럿이서 혼자서 살고 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의「흩고 막뿌리고 싶은」응어리를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신문의 역할은 중요하다. 필자 또한「외대학보」20년독자의 한사람으로, 창간 35주년을 맞는「외대학보」가 그 일익을 맡고자「문턱이 닳아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여럿의 글을 폭넓게 모아 싣겠다는 캠페인은 참 호감이 간다. 결실이 있길 기대한다.

시간이 점점 빨리 흘러가고 인생은 덧없으며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란 인식에서 출발해야 때로는 여럿이서 때로는 혼자서 사는 삶의 보람과 흐뭇함을 찾게 될 것이다. 허무가 단순한 허무로 끝난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작은 일이라도 더 보람있고 뿌듯한 삶을 추구할 때만이 이런 허무감이 의미있는 일이 되리라고 본다. 여럿이서 혼자서 사는 세상, 시와 그림을 보며 살고자 한다.

흡산의 소리

외대의, 외대인에 의한, 외대인을 위한 학보가 되길…

어느덧 외대학보가 외대를 이끌어가는 여론의 선도자이자 캠퍼스의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해온지도 벌써 서른 다섯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자유언론」과「정론직필」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공정보도 실현과 민주언론 쟁취를 위해 뛰어온 외대학보는 도약을 위해 다시한번 날개깃을 힘차게 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대학보 35주년을 축하드리며 외대학보를 무척 아끼는 독자의 한사람으로서 바라고 싶은것이 있다면 우선 대학언론은 대중성을 기반으로 정확성, 공정성에 입각하며 외대의 외대인에 의한 외대인을 위한 학보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대학보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만을 수렴하는 학생들만의 대변지가 되어서는 안되고 교수, 학생, 직원, 그리고 학부모가 참여할수 있는 공동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언론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여 불의한 현실과 부조리앞에 진실의 칼을 꽂을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외대학보 35주년을 축하드리면서 대학 언론의 바른길을 지향하는 참된 외대학보로써 외대인의 진정한 입과 귀가 되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외대학보여! 영원하라!

〈동학·아랍어3 정은주〉

4·3항쟁 사진전 도둑철거는 명백한 반민주 학원탄압행위

지난 3일 노천극장앞광장을 지나가던 우리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개최되던 4·3항쟁 사진전이 하루사이에 노천극장 벽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것도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있던 4·3항쟁에 관한 대자보는 간곳없이 대자보판도 조각난 상태였다.

이 의문점은 교문을 향해 가는 도중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제주향우회명의로 부착된 대자보에는 불법철거에 대한 규탄의 내용이 실려있었다.

이번 사진전은 4·3항쟁의 공간이었던 제주의 학우들 스스로 압제자에 의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알리겠다는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총학생회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때문에 철야작업을 하던 학우들의 모습을 보았던 본인으로서는 가슴아픈 일이었다.

정당한 대자보나 플래카드 기타 선전물이 까닭없이 없어진 것을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밤새 작업하여 만든 선전물이 다음날 보면 훼손되었고, 신나냄새 맡아가며 정성껏 쓴 플래카드가 찢겨있거나 없어진다. 이러한 일은 우리학교뿐만 아니라 타학교에서도 비일비재하다. 가까운 경희대에서는 학우들의 학생회비로 수백만원들여 만든벽화에 누군가 검은 페인트를 퍼부었고, 건국대는 교문앞에 그려놓은 그림이 한밤중에 봉고차에서 내린 괴한들에 의해 지워졌다고 한다.

진리를 진리라 말할 수 있는 자유, 자신의 의견을 거리낌없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수십년에 걸쳐 이야기하던 참민주의 내용이 아닌가? 자유민주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름마저도 민주자유당이라 명명한 현정권의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다.

이번 4·3항쟁을 비롯한 각종 침탈은 명백한 학원탄압이며, 역사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민주행위이고 또한 7천3백여 이문동 학우들을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

한편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껴야할 점은 우리가 너무나도 관성화되어있다는 점이다. 치열한 선거전속에서 선출된 우리의 대표가 학우들의 동의없이 연행되어도, 내친구가 정성껏만든 선전물이 짓이겨져도, 당연한듯이 바라보는 관성이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졌다. 이것은 나만이 아닌, 어쩌면 이문동 모든 학우에게 젖어든 관성일지도 모른다.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비도덕적인 정권에 의해 짓이겨져온 우리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데 경각심을 가져야하겠다.

아울러 지면을 통해서나마 이번 사태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을 제주향우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총학생회 기획부장
정과·신방4 이현숙〉

장승은 한국인의 정겨움, 그 자체입니다

과거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우리것을 미신이니 미개한 것이니 하며 마구 파헤칠때 장승도 마찬가지 수난을 당했는데 이제 남은것은 관광호텔이나 외인용 선물가게, 공원이나 학교에 세워 놓은것 뿐이다. 그러할진대 학교의 장승마저도 보기싫어 파괴하려는 학형들이 있나 보다.

왕산골 교양학관 앞에 세워놓은 장승을 일부 학형들이 돌로 쳐서 그 형상을 알아볼수 없게끔 만들어 계곡속에 내동댕이 쳐 놓은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분노를 느꼈다.

장승은 마을의 풍요와 평화를 빌고 길가는 나그네의 길잡이 팻말 구실도 하는 우리 한국인의 소박한 정겨움 그자체라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을 악마로 연상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의 멋을 설명할 도리는 없다. 그러나 그 속에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들을 지켜주는 조상님들의 숨결과 우리들 자신들의 모습이 담겨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얼마전에 동아리 발대식에서도 한 학우가 고사상위에 올려놓은 돼지머리를 내동댕이치는 일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들은 어느나라 사람이란 말인가?

우리는 우리것을 너무나 모르는것 같다. 민족이 분단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것을 멸시하면 민족의 동질성과 통일은 어떻게 이룰수 있단 말인가?

〈인문·사학2 김덕묵〉

〈알림〉

"『흡산의 소리』를 모읍니다"

어느덧 외대가 지어진지도 3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4·19기념 주간이기도 합니다.

개교 36주년을 기념하고 4·19정신 계승을 위하여 특별히 이에 관한 글을 받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에 보내 주신 형태도 좋습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과 하나입니다

—서대기련 동부지평 기자 모두는 한대신문의 광고질서회복운동과 비민주적 사칙개정투쟁을 적극 지지합니다.

한대신문이 지난 3월15일자로 제작중지된 이후 아직까지 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건전한 광고대행사와의 광고계약체결로 건강한 대학문화의 정착을 꾀하려는 한대신문기자들의 문제제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당국이「제작중지」조치로 대응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학교당국의 몰상식하고 비열한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학신문의 지난한 역사는 군사독재정권의 폭정속에서도 민족민주언론을 구현해 가는 도정이었으며 독자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가는 과정이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전체 지면의 1/3를 차지하는 광고는 퇴폐상업광고와 저질양키문화를 양산하는 내용의 광고로 대학신문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적지않게 실망시켜왔음이 사실이다. 또한 그동안 한대신문의 광고를 대행해 온 애드젠은 우남과 함께 지난학기「자유언론실천대학신문기자연합회」의 광고질서회복운동이 힘있게 진행되면서 악덕대행사로 알려져 동국대, 외대, 서강대 등에서 추방되었으며 한양대에서도 장기계약(4년), 광고료·연체등 불공정한 계약위반 사례가 적발돼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대신문기자들이 악덕광고행사의 무조건적, 무제한적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고 나아가 사내의 구조적 문제인 사칙개정을 통해 독자들에게 좀더 건강하고 떳떳한 신문을 만들려는 한대신문기자들의 투쟁의 목소리를 적극 지지하는 바이다. 아울러 학교당국은 한대신문이 특정집단,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한다면 한대신문 제작중지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역대학신문기자연합회」동부지역8개사는 한대신문기자들과 함께 2만5천 한양대 독자들과 한대신문에 애정을 갖고 있는 모든 이들의「알권리」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유형의 탄압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통일염원 46년 4월9일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회 동부지역 대학신문 기자일동(건대, 경희대, 외대, 서울여대, 서울 시립대, 성신여대, 서울산업대, 세종대)

제4대 총장에 이강혁교수 선임

재단 29일 선임 14일 취임 예정

노조·총학, "재단의 독자적 임명반대" 표명

본교 제4대 총장으로 이강혁교수(법학과)가 선임됐다.

본교 재단인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지난 3월17일(토) 박필수 전 총장이 상공부장관으로 입각함에따라 지난 3월29일(목) 법인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이사9명)로 현재 총장직무대행을 맡고있는 이강혁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 지난6일(금)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으며, 학교당국은 오는 4월14일(토) 오전11시 대학원 강당에서 「제4대 총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재단의 총장임명에따라 교수협의회는 지난 4월4일(수) 「총장임명 동의에 관한 총회」를 열고 전체교수 2백41명중 1백95명이 투표, 찬성 1백70표, 반대 22표, 무효 3표로 총장임명에 동의했다.

한편, 직원노조는 지난 4월3일(화) 총장선임에 대한 입장을 발표 『차후에는 「총장선출위원회(가칭)」등을 통한 민주적·자율적인 방법으로 총장을 선출해야 할것』이 라며 『재단의 총장 임명을 합법화하고 있는 개악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모든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라고 말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지난 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총장임명에 대해 논의한뒤 『개인에 대한 반대에 앞서 비민주적 총장 임명제 철폐를 위해 사립학교법, 민자당 분쇄투쟁에 주력할것』을 결의하고 이후 직원노조와 연대, 공동투쟁을 벌여나갈것이라고 밝혔다.

이강혁 신임총장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5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75년 법학박사학위 취득 △70년 본교 법학과 전임강사 △72년 기획실장겸 학생처장 역임 △86년 법정대학장 역임 △89년 서울캠퍼스 부총장겸 대학원장 역임.

왕산 민주동우회 창립발기인대회예정

왕산 민주동우회 창립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15일(일)오전11시에 용인캠퍼스 어문학관 206호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왕산민주동우회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요행사내용은 ▲회칙심의및 통과 ▲회장및 임원선출 ▲창립선언문 낭독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1시30분에는 전 전대협부의장이며 본교 제9대 총학생회장인 정형주씨의 결혼식이 어문대 로비에서 있게된다.

용인 학생회관 누수확대

학교·건축업자 해결책 제시못해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지하누수로 피해를 입은 동아리가 발생,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왔던 학생회관 누수문제가 아직껏 뚜렷한 대처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4층 동아리방에서조차 누수가 발생,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 89년 10월 학생회관 지하에 방을 두고있는 아웃사이더에 누수로인한 악기부식등 피해가 생겨 건축 당사자인 삼환기업을 상대로 아웃사이더에서 손해배상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학생회관 지하누수문제는 당시 삼환기업에서 「학생들의 부주의로 인한 화장실 배수구 막힘」이 그 원인이라고 설명한후, 도의적 책임상 약간의 피해보상을 하고 일단락 지어졌다.

그러나 지난 3월이후 또다시 누수가 계속돼 여타 동아리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동아리는 「아웃사이더」 「한알」 「말반」등 지하에 방을 두고있는 동아리이며 동아리연합회등 4층에 방을 두고있는 일부 동아리들도 비가 올시 물이 스며들고 습기가 많이차는 것으로 드러났다.

누수로인한 피해때문에 기존의 탁구실로 자리를 옮기게된 「한알」동아리의 김경은(서학·노어2)양은 『물이 새는것 때문에 학교나 삼환기업에 고쳐줄 것을 여러번 건의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며 『동아리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서명운동등 전체 동아리인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학교측은 『관여할 바가 아니며 삼환기업에 알아보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고 삼환기업은 『지하누수는 학생들의 부주의로인한 것이고 4층이나 3층의 경우는 차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 해결점이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의 탁구실등이 동아리방으로 사용됨에따라 타학생들까지 지하복도에서 탁구를 쳐야하는 불편을 겪고있다.

동아리연합회 권익복지위원장 김제훈(사회·무역3)군은 『학원자주화사업의 한 부분으로 파악, 이번 누수문제를 학교측에 강력히 항의하겠다』며 『누수뿐만이 아니라 벽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금이가는 현상도 명확히 그 원인규명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거의 7개월 동안이나 지속돼온 학생회관 누수문제는 지하 동아리방 누수에서 3·4층까지 확대, 벽마다 계속해서 금이 생기는 등 학생들로부터 부실공사라는 원성을 사고 있어 학교나 삼환기업의 명확한 해명과 대처방안이 제시돼야 할것으로 보인다.

수습기자 추가모집

△일반·사진·만화기자:각○명

△모집기간:4월10일~4월12일

△시험일시:4월12일 오후 5시30분

△원서배부및 접수: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

외 대 학 보

전대협 총회, 오늘 열려

상반기 투쟁노선 확정

「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총회」가 오늘(10일)부터 11일(수)까지 양일간 경희대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전대협의장선출 △상반기 투쟁 노선 확정 △전총련(전국총학생회연합) 건설의 경로를 밝히는 조직사업 결의 △전대협깃발 및 구국투쟁문체택 등이며 제4기 전대협의장에 송갑석 전남대총학생회장을 정식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전대협은 『지난 1월22일 자행된 반민주, 친미파쇼야합의 민자당독재아래 이땅의 4천만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민권은 짓밟히고 있으며 소위 북방정책으로 분단은 더욱더 고착화되고 있다』라며 『이번 전대협 총회는 백만청년학도의 단결된 힘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있어 커다란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금 차액 환불 오늘부터 학년별로

지난 4월6일(금) 11%인상액으로 등록한 학생에게 환불될 예정이었던 등록금차액이 오늘(10일)부터 13일(금)까지 서울은 상업은행 이문동지점, 용인은 구내 우체국에서 각각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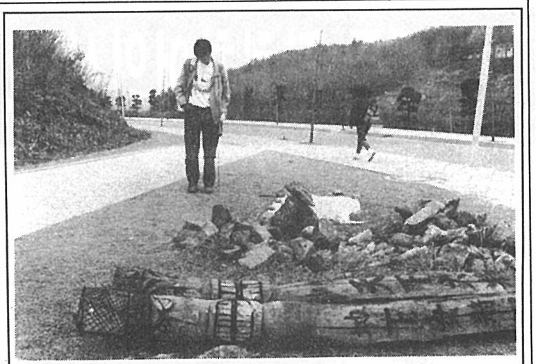
신입생은 서울 4만9천9백원, 용인 3만9천9백원(인문계기준, 서울, 용인 차액은 신입생수련회비잔여분+등록금차액) 2·3·4학년은 2만9천9백원씩으로 이번 환불은 납부영수증원본과 본인도장,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학년별 지급일은 다음과 같다.

△1학년:10일 △2학년:11일 △3학년:12일 △4학년:13일

서양어대 4개과 연합체육대회 개최

서양어대 각과의 친목도모를 위한 「네이프스(각과 명칭 첫자) 체육대회」가 오는 4월14일(토) 대운동장에서 열려 화란어·이탈리아어·포루투갈어·스웨덴어과등 4개과가 참가, 농구, 족구, 축구등의 경기를 벌인다.



초점

용인캠퍼스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세워진 수호신 장승이 모든것에 무관심해지고있는 학생들의 태도를 비웃는듯 쓰러져있다. 〈주재영기자〉

경정과문제 계속 난항

학생, 12일까지 학교측 답변 요구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이하 경정과) 주임교수임용문제가 발생 41일째인 어제(9일) 학교측과 학생측간에 일단 농성을 풀기로 합의함에 따라 새로운 양상에 접어들었으나 완전한 해결까지는 아직도 난항이 거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제(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안병만 기획조정처장, 박희태 용인캠퍼스 부총장, 학부경정과대표 2인, 일반대학원 경정 대표 2인이 모인 회의에서 양측은 「주임교수임명 철회와 경정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학생측 요구에 12일(목) 12시까지 학교측 입장을 밝힐것」을 합의, 어제 오후9시 학생들은 일단 농성을 풀었다.

한편, 경정대학원도 지난 4월6일(금) 오후4시 대학원 411호실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주임교수임명재고」를 반대하며 경정대학원의 현체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힌뒤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과 함께 비상체제로 돌입한 상태이다.

〈해설〉 지난 84년 국내최초로 본교에 경영정보대학원이 개설될 당시, 서울캠퍼스에는 학부학과증설이 금지된 시점에서 학교측은 용인캠퍼스에 경정과를 신설하였고, 87년 학부경정과에서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자 다시 일반대학원내 경정과를 신설, 양대학원관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경영정보대학원등 통일성과 계획성없는 증설로 인해 야기된 이 문제는 대학원경정과, 경정대학원 모두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정연근 경정대학원교수의 대학원 경정과 주임교수 임명은 학부와 대학원경정과 입장에서는 제반문제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인사인 반면 경정대학원에게 있어서는 박사과정 참여의 교두보인 것이다.

따라서 정인근교수의 임명이 철회된다면 경정과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보장되고 발전적인 토의는 재개될지 모르지만 경정대학원은 박사과정참여의 길이 사실상 막히며 학교측에게는 전박필수 총장의 승인이 무효화됨에 따라, 총장의 권위에 대한 실추와 전반적인 학사행정의 불신이 발생되는 문제를 안게된다.

하수도

▲4월 총궐기 투쟁 선포
—이번으로 결단 낼껴

▲민자당 내부분열 확산
—민자의 춘추전국시대

▲외대학보 창간 35주년
—젊은사상, 새로운 소식 늘 푸른 학보로….

빈의자

무노동≠무임금

▲「일하지 않는자는 먹지도 말라」 그런데 이 당연한 말을 애써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말을 애매한 생활의 모습으로 이끌어 내린다. 바로 「무노동·무임금」이다. 임금이란 원래 노동의 대가이므로 노동이 없으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란 노동의 대가라기 보다는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력 재생산비」 성격을 띨 수 밖에 없다. 그래도 한번 자본가의 말대로 임금이 노동의 대가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들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지급해 왔는가? 그 답은 분명히 「아니다」일 것이다. 국가권력의 일방적 비호와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속에서 세계최장의 노동시간, 세계최고의 노동강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대가가 온전히 지급됐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5일, 상공부등 관계당국은 「무노동·무임금 원칙 명문화」등의 내용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87년 이후부터 정부가 추진하여왔던 노력(?)의 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7·8월 노동자 대투쟁이후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대중적 발전속에서 정부는 기존의 강압적 통제방식에 많은 한계를 느꼈던 것이다. 그리하여 새로운 대응책으로 수립한것이 바로 자본의 논리속에서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시간을 철저히 자본의 입장에서 파악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이었다. 그래서 정부당국은 이 「합법적」인 논리를 정당화하기위해 애써 선전해 대며 규칙화, 관행화 하고자 노력했고 마침내는 노동법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이것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의 형태인 파업투쟁에 있어서 그 능력과 전투성을 약화시키고 노동운동을 경제주의적으로 유인하며, 파업이 장기간 계속될 경우에도 생산차질을 극소화하겠다는 자본의 논리인것이다. 그리고 이의 명문화 자체는 이땅의 모든 자주적 노동자에 대한 협박이라 해도 결코 비약은 아닐 것이다.

〈추인수〉

대학신문 광고질서 회복을 위하여—

"한대학, 한신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신문 광고질서회복운동은 이제 한대학, 한 신문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대학인 모두의 문제임을 깨닫고 올 2월 서강대, 성대, 외대, 한대를 중심으로 「광고질서회복과 악덕광고대행사 추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기존 악덕광고대행사들은 한대신문 광고계약 체결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처럼 터무니없이 높은 매체료와 장학금의 유혹으로 광고질서회복운동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학교당국과 악덕광고대행사간의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광고계약에 맞선 한대신문사기자들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우리 대학사회에서 악덕광고대행사를 영원히 몰아낼 그날까지 뜨거운 연대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학교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학신문은 악덕광고대행사의 이윤추구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광고질서 회복을 위한 악덕광고대행사 추방 공동대책위원회

여섯. 공동대책위원회는 왜 필요한가?

새내기 여러분과 독자들께 다음과 같은 책을 권해드립니다

더이상 아름다운 방황은 없다

「동트는 새벽」으로 선보인 바 있는 신예 공지영의 처녀장편소설인 이 책은, 80년대 초반 광주항쟁을 실패와 좌절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던 젊은 대학생들의 초상화와도 같은 작품이다.

—공지영 지음 (풀빛)—

고삐

『고려시대부터 여성을 중국에 조공한 것, 또 신마찌, 정신대, 양색시, 관광기생을 운운하지 않더라도 국내의 백만 윤락여성들까지 주변부자본이라는 그 병폐의 하나였고, 그 걸레판이 잡히면서 쓰기 시작한 것이 「고삐」의 3부작이다』

—「작가의 말」중에서

—윤정모 지음 (풀빛)—

친구는 멀리 갔어도

80년대 우리 소설문학에 수확한 최고의 신인작가 정도상의 힘이 넘치는 첫 소설집으로 한 강제징집 대학생의 죽음을 극한의 리얼리즘으로 추적하여 문단과 독서계, 대학사회에 공전의 충격을 준 중편 「친구는 멀리 갔어도」를 비롯해 「십오방 이야기」, 「새벽기차」등 발표될 때마다 충격과 화제를 몰고온 일곱편의 문제작이 실려 있다.

—정도상 지음 (풀빛)—

무기의 그늘(상·하)

「객지」, 「장길산」으로 민중작가의 역량을 탁월하게 보여준 황석영이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월남전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묻고 있는 장편소설이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속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차지하고 있는 세계사적 의미와 아울러 참담한 우리의 분단현실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다.

—황석영 지음 (형성사)—

파업(원제:동지의 약속)

소모임, 정치학습, 일상투쟁, 해고, 복직투쟁, 노조결성, 분신, 파업농성, 투옥, 노조사수투쟁 등 일련의 노조결성과정을 실재했던 한 대규모 사업장을 무대로 하여 훌륭하게 재형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조직과 전위조직의 건설을 둘러싼 여러 정파간의 이론투쟁과 그들의 사업장에서의 헌신적인 활동 등을 생생하게 그려냄으로써 8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을 그리고 있다.

—안재성 지음 (세계)—

주제 인터뷰

학생대중 정치참여의식 크게 증폭

거대여당의 출현으로인해 민중생존권을 비롯한 갖가지 정치적 요구가 새로운 국면에서 탄압을 받고 있는 지금, 90년대의 학생운동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할수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난 3월31일 「서총련대의원대회」에서 제3기 서총련 의장으로 선출된 윤진호 고려대총학생회장을 만나 앞으로의 학생운동의 흐름을 알아 보았다. 〈편집자〉

대담자 : 윤진호 〈서총련 의장〉
최원일 〈본보 사회차장〉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지역 4십만 청년학생들의 구심으로 서야할 중책을 맡으신 소감과 서총련 의장으로서 올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87년 6월항쟁 이후 성장한 민중운동이 자기의 승리를 위하여 도약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탄압국면속에서 좌초하는가의 중대한 갈림길로 위치지워진 90년도에, 서울지역 청년학도들의 대표를 맡게되어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올해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그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날지언정 6월항쟁과 같은 승리하는 싸움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90년도는 그야말로 역사적 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데, 현재 제도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학생들의 정치적 무력감 또는 탈정치화로 인한 학생운동 침체기」라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곡된 보도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당장4월3일과 4일에 열렸던 각 학교의 총학생회 진군식을 비롯한 여러 집회만 보더라도 학우들의 정치적 참여는 예년에 비해 커다랗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확장된 시위가 조직되는 대신, 빈발한 소규모의 시위를 줄이는 것을 가지고 「탈정치화」나 「학생운동 침체기」로 보도하는 것은 학생운동의 발전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올해의 학생운동의 구체적인 방향과, 그것을 이루는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라할 수 있는 학우대중의 참여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운동의 방향은 정치적 목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과제와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올해 학생운동의 정치적 목표로는 군부독재세력과 친미보수세력이 만들어 놓은 3당통합을 분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이를 위한 조직적 과제로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튼튼한 학생회를 구축하는 것이고 그 방법으로는 학생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국면을 뚫고 나갈수 있는 것은 학우대중이 주체로 서는 조직화된 힘이며, 이를 위해서는 서로의 고민을 통해서 두세가지로 나뉘어 흐르고 있는 학생운동의 단결이 사활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흔히 작년 서총련 사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이 통일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올해의 통일운동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통일운동의 전개는 주관적인 열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정세의 요구속에서 이뤄져야한다고 봅니다. 교차승인을 통한 남북한 유엔가입으로 한반도의 분열을 영구화하겠다는 의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방정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통일운동을 전개하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은 남과북이 서로를 인식하고 교류할수 있는 길을 열어젖혔다는 커다란 성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문제로 한층 발전하지 못했고 특히 우리 민중의 삶이 분단과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음이 오류로 지적됩니다.

올해의 통일운동은 이러한 오류를 극복하면서 반민자당투쟁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의미가 중요하다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거대보수연합과 미국의 개입이라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때, 통일운동 또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 집약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민자당일당독재음모분쇄및 민중기본권 쟁취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과 「민중의 정당건설을 위한 민주연합추진위원회」(이하 민연추)와의 연대는 어떤식으로 이루어 나가실 예정입니까?

친미 반민주 민자당 분쇄에 총력 기울일 터
비권 탈퇴 움직임-학생회 주인 배신 행위

—국민연합에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있고 그것을 강화하는데 서총련이 모범으로 서야할것입니다. 그러나 전민련의 성과를 국민연합이 어떻게 이어낼 것인가하는 문제와 민연추의 경우 한국사회변혁운동에 있어서 합법정당이 가지는 의미를 신중히 논의하고 있으므로 약2주 후면 학우들이 공유할수 있는 서총련의 입장이 발표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일고 있는 일부대학 총학생회의 전대협탈퇴 움직임과 그것에 반발하는 학우대중들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7년 6월항쟁 이후 학우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주인의식은 계속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이같은 학우대중들의 적극적인 진출과 관심에 비하여 일부 학생회 지도부는 이들의 제반욕구를 수렴하는데 미흡했고, 그렇게 되자 그런 학교의 학우들은 보다 나은 지도부를 찾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명확한 관점이 서있지 않았을때 소위 비운동권 후보를 총학생회장으로 뽑게 되는것입니다. 이는 총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교훈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이용하여 현재의 학생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지배자들의 음모가 가세해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런 의도에 말려들고 있는 일부 총학생회의 경우에는 학우들속에서 고립·배제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 않지만 현정권은 앞으로 단대·과차원의 선거에까지 이같은 구도를 적용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총학과 학우대중이 분리되었을 경우 학우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 총학이 좌초되지만 학우와 학우사이의 분리는 학생운동자체의 분열을 의미합니다.

대응방안으로서 학우들의 진출을 올바르게 수렴하는 학생회 건설과, 학원내에서도 보수와 혁신이 아닌 민주와 반민주의 선을 명확히 그어 내야할 것입니다.

▲그동안 학생운동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오던곳이 서울지역이었는데, 전대협 의장을 지방에서 맡음으로써 노출될수 있는 「지휘의 이원화」라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문제는 전혀 없었고 저와 전대협의장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런 문제는 해결될수 있습니다. 저 자신이 전대협의장님을 보필하고 전대협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지금 그런 우려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운동의 조직적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지금, 현 서총련·전대협의 「전국총학생회연합」으로의 발전에 대한 계획과 전망과 애국외대인을 비롯한 40만 서울지역청년학생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전국총학생회연합」은 보다 폭넓은 대중적요구를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이것을 지도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민주적 질서체계를 구축하는 소위 「연합적지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총련은 「연합적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조직에 내실을 기하고 다른 지구총련의 모범으로 서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각지방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늦어도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전국총학생회연합」의 틀이 완성되리라 예상합니다. 서총련의 주인인 여러분께는 우리의 처지와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함께, 예속이 아닌 자주, 독선·아집이 아닌 민주, 분열·대립이 아닌 통일을 위해 기운차게 생활하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6공의 북방정책을 보며
멀어 져만 가는 통일의 꿈

90년대에 접어들면서 6공화국에서는 대사회주의권과의 다각적인 문호개방과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미명하에 활발한(?) 북방정책을 펴고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 헝가리, 루마니아등의 동구 여러나라와 외교관계를 맺는등 북방정책을 가시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현재 정부가 표방하는 북방정책을 논함에 있어 과거의 북방정책고찰은 현정책에 대한 올바른 관점정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요건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방정책은 88년 올림픽을 전후하여 노태우의 7·7선언과 UN연설등을 계기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노태우의 7·7선언이 과거에 행해져온 북방정책과 무엇이다른가 하는 점이다. 7·7선언의 기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남북교역개방과 중·소와의 관계 개선 적극 추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등 과거 7·4남북공동성명을 부정한 6·23선언과 별반 차이점이 없다. 다만 과거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교역상태가 비공개적이 었다면 7·7선언이후의 교역은 공개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그나마 약간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6·23선언이 중국·소련사이에 남한을 인정하지 않는한 미국·일본도 북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차접촉」 「교차승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 현재 진행되는 북방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중·소와의 경제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교역을 이루어내고 이로써 한반도에 두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알려 남북한 UN동시가입 여건을 만든후 한반도의 대결상태를 지속화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소련및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환심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70년대 초의 북방정책은 동·서화해의 무드와 미·소냉전의 해빙으로 미국의 영향하에 놓여있는 남한으로서는 당연히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야만 했다. 이렇게 국제정세의 흐름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북방정책은 미·일만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그 핵심목표인 「교차접촉」에 관한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련이나 중국및 동구사회주의권국가에서는 국제학술대회나 스포츠대회에서만 이따금 참석을 하게 해 주었고, 경제적인 교류역시 제3국을 통하여 극히 한정된 부분만을 허용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북방정책이 별다른 내용변화없이 중·소및 동구권 국가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권의 개혁과 맞물려 지면서 마치 과거와 전혀 다른 정책으로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이는 현정부가 몇몇 동구·사회주의국가의 잘못된 사회주의개혁 정책과 사회주의권의 전반적인 개혁의 물결을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북한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주변의 4강중 2강국인 중국과 소련의 인정을 받으면서 「교차승인」의 발판을 획득하려는 분단 고착화 정책의 일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실리외교 표방한 북방정책, 두개의 한국 조작 음모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의 악법부터 철폐해야

현재 남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볼때 우리나라의 북방정책에 있어 미국의 역할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면이 그러하듯 북방정책도 미국의 저강도전략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지난 75년 9월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안을 정식으로 제의한 키신저 미국무장관을 비롯하여, 79년 7월 1일 카터전대통령의 한미공동성명에서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을 지지하는 미국정부의 입장표명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궁극적으로 남한의 대사회주의권 외교강화를 종용하면서 결국에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더나아가 사회주의국가들간의 결속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저강도 전략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허구적인 북방정책속에서 진정 이것이 통일을 위한 역사적 맥락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미국의 각본에 따라 영구분열안인 6·23선언과 교차접촉의 문구바꾸기에 지나지 않는 낡은 문서의 변종」이기를 거부하고 두개의 한국, 즉 분단고착화의 길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을 고립화, 열세화시키지 않고 남북관계의 개선이 곧 공산권 관계개선의 열쇠라는 엄연한 사실을 깨달아야한다. 때문에 남북관계와 북방정책간의 관계는 연환논법이나 악순환논법이라는 양자택일적 개념이 아니다. 통일방안과 그 논의가 본격적 실천궤도에 오를때 북방정책도 진정한 결실을 거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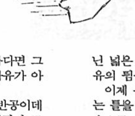
통일논의와 운동에 관한 내부 각 세력간에 노정된 이견을 조정하고 북방정책이 시지프스의 헛수고로 끝나기를 거부하며 민족모두에게 통일을 향한 새 희망의 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체제적 개혁을 단행시키는 것이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국시라 할 수 있는 반공을 개선하고 북한을 이적단체로 규정짓고 있는 국가보안법 및 사회안전·보호법 폐지, 안기부법등 반민주악법철폐와 대북창구의 단일화 폐지등, 정치적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군사적으로 대규모 군사연습중지, 남·북 군축을 통한 화해무드 조성, 핵무기 감축과 주한미군 철수등 군사에 있어서도 자주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현정권 내부에서는 진행될리 만무하다.

해방이후 남한의 역대 정권들이 하나 같이 친미 독재정권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의 어려움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통일은 현재 독재정권의 손에 있는 기득권을 우리 민중들의 손으로 빼앗아 직접 이와같은 작업들을 해나갈때 그 평화적인 첩경으로 향할 수 있으리라.

〈정성엽 기자〉

미네르바

쳇바퀴 속의 자유



▲쳇바퀴안의 다람쥐는 자유롭다. 적어도 쳇바퀴라는 한정된 공간안에서는, 쳇바퀴의 다람쥐는 자신이 뛰고 싶을때 마음대로 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다람쥐의 한정된 틀속에서 의 한정된 생각일 뿐이지 진정으로 자유로운 뜀은 될 수 없다. 쳇바퀴의 다람쥐는 주인이 주는 도토리만을 먹기때문에 다른 먹이는 접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못먹는 것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그 틀을 깨고 들로 뛰쳐 나가는 다람쥐는 도토리만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의 모든 열매를 먹이로 하여 여러가지를 고루 섭취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 사람들의 사상은 자유로운가? 자유롭다면 그것은 혹시 쳇바퀴안 다람쥐의 자유가 아닐까?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상황과 반공이데올로기. 그 속에 세워진 독재 정권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곳, 이러한 사회안의 우리들은 진정한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을수 없을 게다.

우리들이 느끼는 자유가 쳇바퀴속의 다람쥐가 신나게(?) 쳇바퀴를 돌리며 자신이 자유롭다고 느끼듯이 규정된 이념의 틀속에서 자유롭게 생각하며 느끼는 자유는 아닐까.

▲오늘날 우리사회는 스스로 판단 할만한 조금의 여지마저 있지 않다. 우리의 사상은 정치권에서 필요한 사상으로 도색되어지고 지배이데올로기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사상은 접해보지도 못한채 걸러지고 있다.

▲이제 우리는 쳇바퀴에서 벗어나 주어 지는 사상만을 취할 것이 아니라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먹어보지 못한 온갖가지 열매를 접해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열매를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될 때 쳇바퀴 내에서의 정지된 뜀이 아닌 넓은 공간에서 움직이는 진정한 자유의 뜀을 뛰게 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의 자유를 막고 있는 틀을 깨야 한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질 때 열린공간에서 갖가지 음식물을 섭취하는 다람쥐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주〉

우리가 가꾸는 증권시장
국민경제의 밑거름이 됩니다.

대우증권 창립 20주년기념 논문 현상공모

우리 자본시장의 百年大計를 설계해주십시오.

주식인구 700만명, 상장회사 640여사, 시가총액 92조원…증권시장의 규모가 세계 9위에 이를 만큼 커지고 활발해진 우리의 증권산업— 90년대 들어서는 증권시장개방, 국내자본의 해외진출 등 자본국제화를 지향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증권회사로서 이같은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깊고 넓게 생각해온 대우증권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앞날에 대한 여러분의 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주 제
1) 자본시장개방과 증권시장 발전방향
2) 자본자유화와 경제국제화의 효과적 수용
3) 2000년대의 한국경제의 구조와 자본시장의 발전방향
■응모자격 : 제한없음
■응모요령
●논문분량 : 200자 원고지 100매에 해당하는 분량 (10매 내외의 요약문 첨부)
●제출처 : 당사기획부(150-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4-3) 및 각 지방지점
●1인당 응모편수 및 공동제출 제한없음
■응모마감일 : 1990년 8월 11일(토)
■당선작 발표
●1990년 9월 14일 (금)
●당선자는 개별통지하며 경제지에 공고함
■시상내역
●최우수 1편 : 상금 300만원과 상패
●우 수 2편 : 상금 200만원과 상패
●가 작 3편 : 상금 100만원과 상패
■기 타
●접수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학교명, 직장명이 인쇄된 원고지는 사용할 수 없음
●원고는 200자 원고지 또는 워드프로세서, 타이프로 작성할 것
●논문제출시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기할 것
●당선작의 저작권은 당사 소유이며, 모방작 및 타기관에 기 제출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기획부 논문 현상공모 담당자에게 문의할 것(768-2103~6)

대우증권
대우경제연구소
대우투자자문

외대학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북한언론에 대한 올바른 접근방법

외대논단

현대 독일 통일을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을 「동·서 독일 언론매체들의 주도하에 서로간의 무전제적인 전파의 개방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들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조들 대부분은, 독일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서로 비교하여 우리도 하루빨리 독일과 같이 남·북한 언론을 개방·교류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이글에서는 먼저 위와같은 논조가 갖는 난점들을 분석해보고 어떠한 시각에서 북한의 언론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사회과학의 한부분으로써 의식적 단계나 이데올로기적 관계의 연구는 그것이 무엇에 의해 발생되었고, 여타 영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봄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 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양식에 대한 평가 또한 물직적 사회관계의 반영으로써 그것에 대한 변화를 객관적이고 합법칙적 인식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한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위와같은 인식아래서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는 북한 사회조직체계의 기본적인 설명이나 언론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도없이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소개차원에 머물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자들은 북한 언론과 남한 언론을 서로다른 사회체제로서의 특수성은 무시한채 오로지 동일선상에서 기계적으로 대립시켜 비교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지배이데올로기적 참주선동에 휘말려 들게 하고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궁극적 목표는 「체제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이지 결코 북한 언론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거의 대다수 북한 언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언론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결여에 있다. 이로인해 도출되는 문제들을 「서로간의 정보의 빈곤」 때문이라고 일축해 버리고 그 해결방안으로써 「무전제적 전파의 개방」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통독의 전파매체의 개방과는 엄연히 다른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어거지로 통일의 방안에 끼워맞추려는 술수들은 다분히 비판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잠깐 전파매체의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남북한이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어의 상이함을 극복하고 각종정보 다양화를 개방한다 하더라도, 전파매체인 텔레비전 신호방식의 차이점을 현실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목적달성의 문제점은 그대로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참고로 남한은 일본·미국식의 신호방식인 NTSC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은 유럽식의 PAL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분할 과정중에 발생된 것으로 왜 두 방식을 각각 달리 채택하게 되었는지 본글의 영역이 아닌듯 하다.)

따라서 남한에서 북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하려면 집집마다 텔레비전수상기에 신호호환기를 따로 부착해야만 가능하다. 이 호환기 역시 몇년전까지는 개발되지 않았던 기기이다.

이렇듯 어느 사회든지 언론은 사회경제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측면을 철저하게 이해하지 않고는 언론정책이나 언론이데올로기 성격을 올바로 파악할 수 없다.

몇가지 예를 더 들어보면 이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북한 언론의 특징으로 소개되어지는 언론의 「계급성」도 그 사회체제의 조직형태에 기인한다. 북한은 모든 언론이 전체인민의 소유이므로 북한언론이 철저히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번째, 북한신문에 광고란이 없는 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이한 현상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광고」가 생기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이 자본주의 체제모순의 산물이며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의 산물인 남아도는 상품의 처리를 위해 「광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계획경제하에서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상품」이 없으므로 광고의 필요성이 전무후무하다.

이같이 서로다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라야 사회주의 신문지면의 광고의 부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언론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특수한 사회제반적 조건들과 경제구조들을 철저히 파악한 후 객관적 관점으로써 현상을 대해야 할 것이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최소한의 고민마저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면적 지식의 양적팽창은 북한에 대한 막연한 선입견만 재생산할 따름이다.

이의 단적인 예로써, 최근 한 연구자는 남한사회가 한겨레 신문과 같은 반정부적(?) 언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그 반면에 북한은 조선로동당이 전 언론기구를 장악하고 있음을 비교하여 이 땅의 언론제도가 훨씬 자유롭지 않느냐는 위험천만의 발표를 하였다. 이것이 현재 「북한바로알기」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북한 사회 연구의 일반적 경향이라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조국현실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위사례들이 실로 한 학자의 잘못된 문제제기나 비논리적 우매함에 그 원인이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사회구조적 모순을 비호하는 제도언론의 행패에 너무나 충실히 길들여져 있어 폐쇄적인 북한에 대한 한치의 「새로운」 시각을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가질 수 없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의 지향은 북한에 대한 편향적 사고를 철저하게 객관화 시켜 북한 언론 상황에 대해 실체도 없는 입씨름에 말려들지 말고, 북한 언론이라는 구체적 연구대상에 과학적 태도로써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북한의 언론 상황에 접근해가는 우리의 올바른 관심과 태도는 어느 학자의 이론을 마치 원리인 양 그것에 북한 언론 상황을 꿰맞추려는 엉뚱한 「과학의 자유」라는 방종을 저질러서는 안된다. 철저하게 사회구조의 체계하에서 북한사회 언론 현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일정한 내적 운동법칙을 올바른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최 은 경
〈정과·신방4〉

학술정보

■역사문제 연구소 15기 한국사 교실 강좌

역사문제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역사와 1990년대 지방자치제」라는 주제로 3월14일 부터 매주 수요일에 15기 한국사교실 강좌를 실시한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즈음해서 제2공화국때 실시했던 경험과 현재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민주세력의 대응방안및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4월11일(수):지역사회, 지방정치와 지방자치제—김태일(고려대 정치학과·박사과정)

△4월18일(수):1990년대 정당정치와 지방자치제—고성국(고려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문의는 역사문제연구소 (277—4622, 279—4601)

■백기완 선생 시국강연회

통일문제연구소에서는 오는 4월12일(목)부터 「백기완 선생 시국 강연회」를 개최한다.

△4월12일(목) 오후4시:민중정당은 왜 필요한가—동국대학교 만해광장

△4월16일(월) 오후3시:민중정당 건설을 위한 시국 강연회—경원대학교

△4월17일(화) 오후5시:현정세와 민중운동의 진로—연세대학교(원주)

△4월18일(수) 오후12시 30분:4·19혁명의 의의—장안전문대 대강당.

문의는 통일문제연구소 (926—6177)

■사월혁명 연구소 학술발표회

사월혁명 연구소에서는 「사월혁명과 한국사회 변혁운동」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18일(수) 오후 1시30분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학술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4·19혁명 기념일에 즈음하여 사월혁명의 의미를 되살려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족민주운동의 문제점 점검과 아울러 이후 과제및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주제발표및 토론〉

1.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사월혁명—하일민 교수(부산대·철학)

2.사월혁명과 학생운동—이재오(서울민중연합의장)

〈토론자〉

이우재(사월혁명연구소 기획간사), 이훈기(서울대 총학생회 학술부장), 황인성(기독교 사회연구소 연구원)

3.사월혁명 논사—김동춘(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4.한국사회변혁과 사월혁명—김재훈 교수(전북대·사회학)

〈토론자〉

김근태(전민련 집행위원장), 박철민(전국노동운동연합회 회원), 장기영(한국사회연구소 연구원), 유초하 교수(충북대·철학)

문의는 사월혁명 연구소 (588—8753)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 정책세미나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에서는 「한반도 평화·군축운동의 조건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4월29일(일)오후 4시30분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제1강의실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주제발표및 토론〉

1. 평화·군축의 세계적 조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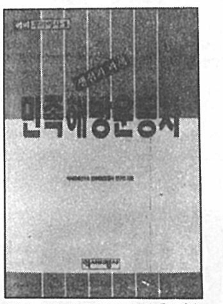
2.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군축의 조건

3. 한반도 평화·군축운동의 방향

문의는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763~9563)

이 책

80년대에 축적된 연구역량을 통한 민족해방운동사연구의 총체적분석



민족해방운동의 자취를 캐고 분석하는 일은 현단계 변혁운동의 실천속에서 지나간 선배들의 좌절과 실패를 재해석하며 현재화시키는 작업이다. 역사연구의 모든 범위가 그러하지만 이 부문만큼 정치적 대립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드물다. 그런점에서 민족해방운동사의 연구사적 궤적을 추적하는 것은 곧 민족민주운동의 과정을 더듬는 일이며 그 연구가 한계를 가졌다면 이는 곧 당면의 민족민주운동이 갖는 한계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니다.

역사문제연구소의 「민족해방운동사(역사비평 펴냄 1990)」는 진보적인—그러나 아직은 미숙한—젊은 연구자들이 현재의 변혁운동에 대한 실천적인 의지 속에서 45년 이후 현재까지의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해 연구사적으로 총망라하여 분석한 성과물이다. 물론 집단연구임에도 통일된 견해로 집약되지 못하고 관점의 차이가 소화되지 못한 채 드러나 있지만 이것은 전술한 바대로 현재의 민족민주운동이 갖고있는 한계이다.

· 민족해방운동사에 대한 인식이 현재의 운동흐름이 갖고있는 한계를 넘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 또한 지금의 사회운동이 갖는 한계이며 이 벽은 연구사적 궤적을 비교적 충실하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의 전망이 뚜렷하지 못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따라서 「민족해방운동사」출간은 단순하게 연구사적 의의뿐 아니라 현단계 민족민주운동의 수준에서도 바라보아야 한다.

「민족해방운동사」는 연구자들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독서가 될 만하고 추켜세워줄 가치가 있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관변 이데올로기에 의해 「상식화」된 「독립운동사」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민족해방운동사」의 족보를 되찾고 민족해방운동의 「사실」이 어떻게 왜곡되어 왔으며 그리고 왜 왜곡되어졌는가에 대한 역사성을 보여주고 오늘의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지나면서 존재하고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민족해방운동사」는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에게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가늠하고 성과를 총점검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풍부하다. 노동, 농민, 여성, 문화운동등 각 부문운동은 물론 신간회운동과 사회주의, 민족주의자의 활동등을 시계열로 연구의 흐름을 정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 까지 대부분의 연구서가 취급하지 못하고 있던 동북지역의 항일무장투쟁과 조국광복회운동에 대한 연구사적 추적을 대단히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또 하나 높이 사주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각 부문운동 또는 지역별로 남한에서의 연구 뿐 아니라 일본은 물론 중국의 연변과 북한에서의 연구까지 자세하게 포함하여 정리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들과 견해를 달리하는 연구자들도 또 다시 연구목록을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연구수준과 인식방법론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자체만으로도 「민족해방운동사」는 제법 오랜기간동안 생명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아쉬움을 또 하나 지적하자면, 운동의 각 부문별 또는 지역별, 사상적인 차별성에 따라 이 책에서는 모두 13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각 장별로 서로 통일적인 유기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사실 이점에 대해서는 집필자들이 두고 두고 고민하면서 그 결과가 증보판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 크다. 왜냐하면 책 배열상으로는 장별로 유기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전체 민족해방운동의 줄기를 앞으로의 전망 속에서 제대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자기고백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책임이 집필자들에게만 있는것이 아니고 모든 연구자들을 포함한 사회운동이 갖는 한계때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민족해방운동사」는 진보적인 한국사연구자들이 80년대의 10년을 지내는 동안 축적했던 연구역량과 고민의 나름대로의 결산물이라는 점 때문에 귀중하고 사학사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여겨진다.

정태현〈고려대 강사〉

사람산맥

이 상 수

언론의 참빛 안종필 동문

길고 어두웠던 유신독재가 79년 10·26 사태와 함께 종말을 고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80년 서울의 봄은 민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술렁거렸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지배하던 80년 2월29일,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유신독재의 시퍼런 칼날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민주언론의 한줄기 빛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던 「제2대 동아일보 자유언론투쟁위원회」 안종필 위원장이 가족과 50여명의 동료동지들의 통곡속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마감하고 있었다. 그는 시대의 불의와 투쟁을 끝내고 먼저 타계한 이의직, 조민기 언론인동지의 뒤를 이어 자유언론 실현의 꿈만을 남겨둔 채 영면한 것이다.

안종필, 그는 1937년 부산에서 출생하여 비교적 부유한 환경에서 성장했고 남에게 헌신적인 소년이었으며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 무디고 순수했다. 일찍부터 동아일보 특파원이 될 꿈을 품고 있었던 그는 고교졸업 후 해외 특파원의 꿈을 안고 56년 본교 영어과에 입학하여 62년 졸업하게 된다. 그후 부산일보에 입사했으나 이듬해 조선일보를 거쳐 동아일보에 스카웃된다. 월남전때에는 많은 특종기사를 발굴해 내는 등 뛰어난 기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젊은 나이에 편집차장으로까지 승진한다.

격동의 74년, 동아일보 기자들에 의해 유신독재의 언론말살 정책에 대항한 「10·24 자유언론실천선언」이 나오자 독재정권은 광고탄압으로 이에 대응한다. 다음해 2월8일 안종필 동문을 포함한 편집국 간부들은 자유언론 실천의지를 밝힌 「2·8선언」을 발표한다. 그러나 회사측에 의해 20여명의 기자가 해직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에 맞서 2백여명의 기자들은 제작거부와 농성에 돌입한다. 농성이 계속되자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해왔던 회사측은 17일 새벽, 술취한 구사대를 투입하여 1백20여명의 기자들을 무차별 구타로 신문사 밖으로 쫓아내고 무더기 강제해직시킨다. 이렇게 해고된 1백20여명의 기자들은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진동아」를 매일 아침 배포하며 어렵고 기나긴 투쟁의 행로에 들어선다.

생활고와 기관원들의 일상적인 감시·연금조사에도 굽힘없는 4년여의 투쟁이 계속되었고, 유신독재는 동아투위가 「10·24자유언론수호선언」 4주년을 맞아 제도언론에 의해 보도되지 못했던 내용으로 「민권운동일지」를 발행하자 이를 문제삼아 10여명의 동아투위 위원을 구속한다. 안위원장은 법정에서도 자유언론과 민주언론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남은 동료들의 힘을 북돋운다.

『우리들의 보도되지 않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죄가 되어 구속됐다……

악법도 법이지만 악법은 시행되기 전에 철폐되어야 한다』

유신독재의 법정으로부터 2년형을 언도받은 안종필동문은 옥고를 치루는 사이에 발병한 간암이 악화되어 79년 12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기까지의 남은 여생의 대부분을 차가운 감방에서 보내야 했다.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 찬 한 시대를 가장 의롭게 살아간 고(故) 안종필선배의 10주기를 맞이한 지금, 다시금 어두워지는 언론상황과 정치현실속에서 역사와 민족 앞에 떳떳하고 자랑스런 애국외대인의 모습은 진정 어떠해야 하는지 개교 36주년을 맞는 모든 외대인의 고민거리로 남겨두고 싶다.

〈대학원 중남미지역학과 석사과정 〉

작은 꿈들이 모여 힘있는 나라를 만듭니다. 2

외대학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삼촌! 물위로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면 정말 신날텐데…"

물위로 달리는 자동차를 다른 말로 수륙양용 자동차라 하는데
이미 2차대전때 독일에서 개발해 사용한 적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 국군에도 수륙양용 장갑차가 있단다.
그런데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얕은 물은 건너가지만
강이나 바다를 마음대로 달리지는 못해.

그렇지만 여러나라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땐
틀림없이 플라스틱처럼 가볍고 강철처럼 튼튼해서
물위와 물속을 자유롭게 달리는 자동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거야.

그래. 현준이가 지금부터 꿈을 갖고 연구해서 만들어보렴?
넓은 수평선을 마음껏 달리며 파도타기도 하고 바닷속의 신비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수중자동차를 만드는거야.
지금까지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 크고 작은 발명품들도
처음엔 모두 작은 꿈으로부터 시작했단다.

상상해봐! 수중자동차 발명가 김현준—
정말 멋지고 신나지 않겠니?

H대 금속·재료공학과 2년

꿈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작은 꿈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現代自動車

◇ 최근 대학언론의 대중성되찾기 움직임을 살펴본다

대학신문 = 대학인의 신문?

채 백
〈신방과 강사〉

대학언론의 사회적의미획득은 대학내 위상확립이 전제 돼야

얼마전 부터인가 대학사회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변화 중의 하나로서 우리는 대학신문들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대학의 신문들이 대학내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면을 통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추측컨대 대학신문들이 그동안 대학사회내에서 지나친 선도성의 추구로 인한 사실상 많은 학생들과 유리되어왔다는 뼈아픈 자기반성의 결과로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튼 이러한 변화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따라서 주마가편(走馬加鞭)격이 되겠지만 대학언론의 위상과 그것이 지향해야될 바에 대하여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대학신문은 일단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이다. 물론 대학신문의 독자가 반드시 대학사회의 구성원으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대학사회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할 때 대학신문의 위상이 비단 대학사회내에만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언론이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사회내에서 그 본래의 위상을 먼저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언론이 전체 사회 속에서의 의미를 획득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진부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대학언론의 주체는 대학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되어야 한다. 구성원 모두의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대학언론의 위상정립을 위한 첫번째 조건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대학사회의 구성원들이란 다양하고 이질적인 집단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들은 다양한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언론의 올바른 위상은 이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를 수렴하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의 대학언론들이 보여준 이념적 편향성을 일정하게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학인들로부터 조차도 외면당하는 대학언론이라면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관심사부터 반영하여 이를 대학사회내의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그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대학사회내에서부터 대중성을 확보해 내는 것이 대학언론의 위상정립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하겠다.

대학사회내에서의 대중성을 기반으로 할 때 비로소 대학언론의 사회적 의미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며 그 활동영역도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학언론의 사회적 위상 및 변혁운동에서의 위상에도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리라는 말이다.

창간35주년 기념특집

'90 외대학보 매…

80년대 우리의 대학신문은 급변한 민주화의 시대속에 대학인의 올바른 사회인식과 각성의 촉진제가 되었다. 하지만 발전하는 역사는 이제 대학신문에게도 더욱 발전된 과제를 부여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대학인의 정서와 생활속에서 함께하는 신문을 요구한 것이다. 「외대학보」에 메체혁신이 처음 거론되고 만 1년여가 된 지금 그 평가작업은 발전하는 「외대학보」의 채찍질이 될것이다. 〈편집자〉

주관주의적 편집·기획 극복하고 대중과 함께 하는 기자상 정립해야

평가를 시작하며

명문만의 「자기신문」으로 타대학 친구들과의 편지대용으로, 심지어 깔개로도 쓰이다가 휴지통에 버려지는 「종이조각」까지 전락했던 「독자따로」「기자따로」의 대학신문의 현실은 그리 먼 과거의 얘기도, 결코 생소한 문제도 아니다.

학생들의 일상생활 정보지로서의 대학신문은 학우 전체를 포괄해내는 대중지로 신문제작에 참여하는 기자들과 그 접근에 용이한 소수 몇몇의 소유물일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대중과의 유리현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대학신문사 안팎 모두에서 드높다. 더구나 기자 자신들만의 자기만족적인 언론생활을 개선하고 독자들의 일상생활에 튼튼히 기초한 「대중지」로서의 신문을 정착시키기 위한 자성의 몸짓은 그 어느때보다도 진지하다.

「매체혁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대학신문의 자기개혁의 몸부림은 매체의 내용과 편집스타일은 물론 기자들의 생활태도, 신문사내 풍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다한다.

본고는 이렇듯 지금까지의 전반적 사회변화 과정에서의 부여받은 대학신문의 올바른 자기위상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이로 부터 도출되어진 일정한 틀거리하에 외대학보를 중심으로 대학신문들이 노정시켜왔던 오류와 한계를 지적해보고, 마지막으로 그간 「외대학보」에서 수행되어진 매체혁신사업의 실 내용과 성과들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극히 현상적이나마 본고의 검토와 평가가 「우리의 신문」인 외대학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제기 및 실질적 참여를 촉발시켜 학보가 진정 외대인 모두의 「자기신문」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대학신문의 현재적 위상

대학신문의 성격을 규정짓는 논의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진보성향의 민중지향적 대중지」라는데에 큰 이견이 없는 듯 하다. 이는 가독층인 독자범위가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규정 되어지는데 현 한국사회에서 대학생들의 조립기반으로부터 기인하는 태도와 의식의 진보성을 담보해 내고 또 이를 보편화 시키기 위한 매체가 바로 대학신문임을 뜻한다 하겠다.

80년대 중반 이후 사회 전반적 민주역량을 성장속에 대학언론 또한 학생운동의 일환인 「학생언론운동」이란 측면에서 발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후 이러한 「운동」상의 과제추구 과정에서 「왜곡되어진」대중 선도성의 지향은, 실질 독자대중인 전체 「대학인」의 생활과정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게 되는 오류로, 다시 이로부터 「대학인」들의 구체적인 이해와 요구의 정도를 올바로 고려치 못하게 되는 오류로 치닫기도 한다.

한편 대학신문은 대학내의 합법 출판매체도 캠퍼스내에 존재하는 제반 언론형식들과 구분되는 특화된 보도 영역을 갖는다. 이 점은 신문이 대학내 어느 특정 부류의 대변지이거나 혹은 최근 많은 지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수 운동가만을위한신문이아님을말한다.

또한 87년이후 사회 각 부문에서의 민주화 움직임의 확대는 출판·언론계에도 그 영향을 미쳐 진보지를 자처하고 나선 각종의 일·주간지가 발간되고 있고 각종 사상·이론지의 복·창간 그리고 학계의 연구풍토 활성화와 이에 따른 출판계의 성장등으로 기존 대학신문이 담당해 오던 영역은 일정부분 특화를 요구 받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각 대학에서의 학생회의 토대구축과 학회 단위의 발간물들과의 관계에서 대학신문은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과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것이다.

이렇게 대학신문에 새롭게 제기되는 위상과 성격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함과 변화된 상황에의 적응력 부족은 그간 무수히 많은 편향과 질곡으로 현상화 되어졌고 지금의 매체혁신사업은 그 중대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대학인 모두의 과제인 것이다

외대학보 35살을 맞아 ——

「외고집」의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외대학보 창간 35주년을 맞이하여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소속 대학신문사 중 모두 10개 대학신문사의 4단만화 주인공들이 우리의 「외고집」을 중심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도움주신 「서울지역 대학신문기자연합회 만화분과」소속 기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편집자〉

▲소개합니다:(왼쪽부터) 건대신문「짱돌」, 덕성여대신문「먹이와 성이」, 상명여대학보「알짜」, 고대신문「고투리」, 외대학보「외고집」, 세종대학보「세나리」, 한성대신문「꼬투리」, 동덕여대학보「안달이」, 서강학보「길거리」, 광운대신문「말뚜기」, 홍대신문「소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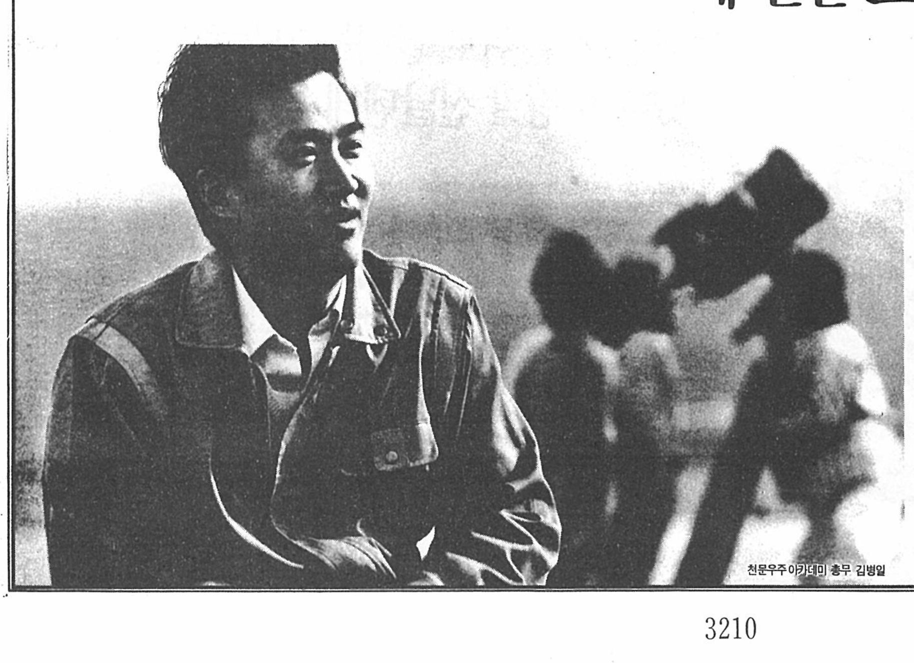
외대학보의 생일이라구요?

—서울지역 대학신문에 게재되고 있는 4단만화의 주인공들

사람을 소중히, 꿈을 소중히
꿈을 실현하는 젊은이들

외대학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왜 별을 보느냐구요?”



검은 밤하늘의 아득한 나라 속에서
희망처럼 반짝이는 별무리들——
백세 인간이 200억살의 우주를 동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인지도 모른다.
“왜 별을 보느냐구요?
호기심 때문이죠. 우주보다 더 큰 수수께끼는 없거든요.”
우주에 대한 그리움이 그리움만으론 모자라
천문우주 아카데미 강사가 된 김병일씨(29세).
자리를 잡아가던 컴퓨터사업도 그만두고
이길로 나선 것은 그가 지나친 이상론자여서일까?
“전 천문학자도 아니고 별이 좋아 이일을 하는 것 뿐이에요.
한가지 꿈이 있다면 천문학을 통하여 나도 있고
이웃도 있고 또 우주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과학의 대중화운동이라고나 할까요?”
그는 이 운동의 일환으로 과학캠프, 서적출판,
과학교재보급 등을 준비중에 있는데 일손이 모자라
날 밤을 새우기 일쑤다.
“자신의 신념만 확고하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이 정말 무엇을 하고싶은지 찾기에 달렸지요.”
과학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그에게
어린이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어린이들은 순수해서 옳은 것은 곧 받아들이거든요.
다만 동심이 세파에 시달려 혼탁해져가는 것이 안타깝지요.
어린이에게 건강한 꿈을 심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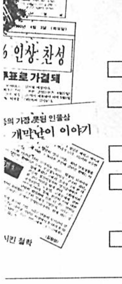
천문우주아카데미 총무 김병일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우는 젊은 이야기를 찾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이야기는
대학지광고로 소개하고 소정의 고료를 드리겠습니다.
■ 보내실곳 :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우체국 사서함 47호
「人材第一」편집위원회/TEL.730-9711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외
대
만
주
동
우
회

체혁신 중간평가



외대학보 매체혁신의 긍정적 결과물

□취재기사의 분석기사화
□외대 여론수용의 대폭확대 (「흙산의 소리」증면)
□외대소식·정보량 증가
□외부필진 감소, 외대내필자 증가
□논문의 난이도 감소

독자참여 강화등 변화시도 노력, 일시적 조류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돼야

외대학보의 과제

89년 이전까지 발행 되었던 외대학보를 중심으로 그간 노정되어온 대학신문의 문제점을 간략히 지적해 보기로 하자. 당연히 이들 문제점들은 매체혁신 사업에서 해결 되어져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점들에 공통으로 관류하는 것으로서 기자들의 주관주의적 편집·기획이다. 이는 보다 구체적으로는 빗나간 경쟁의식과 소영웅주의적 우월의식의 문제인데, 일반 학우들의 수용능력 보다는 신문을 통한 경쟁과 과시욕구가 우선시 됨으로써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또다른 문제는 독자대중이 스스로의 생활속에서 도저히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호응 못할 기자들의 자의적 사고기준에 의한 아이템의 설정과 편집이다. 집회장의 「선정적」구호가 그대로 제목과 부제에 실리는가 하면 고도의 정세전망등의 무절제한 게재가 그것이다.

책상앞에서 「머리」로만 작성되는 기획과 기사가 결코 학우들과 친화력을 가질수 없음은 당연지사한 일이다. 우리는 학우들의 생활공간이라면 어디에라도 직접 발로 뛰며 세세한 문제들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우는 「우리의 기자」를 만나보게 되기를 원한다.

다음은 매체혁신사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도 결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문성」에 대한 경시풍조를 들 수 있겠다. 지난날의 운동성에 대한 일면적 강조로 부터의 극복과 대중성 강화를 위한 실재적 방도와 대안의 불충분으로 인한 구체성을 결여한 논지와 조악한 기사, 산만한 편집의 양태는 이를 입증해주는것들이다.

외대학보의 지면 변화

매체혁신의 전 영역 중 지면혁신은 기자들의 주체혁신등 타 영역의 문제와 성과가 반영되어 독자들에게 다가가는 매체혁신의 실체적 산물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는 90학년도 1학기 개강호 이후 발간된 외대학보를 지면별로 살펴 봄으로서 매체혁신 사업의 실제 진전 정도와 성과및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취재·기획면을 보면 기사 밸류(Value) 선정상 집회·시위 기사의 관성화된 우선 보도가 지양되고 학우들의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예를 들어 과단위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큰 비중이 두어진 경영정보학과 교수임용 기사를 보라)또는 중요 사항의 발굴기사 게재에의 노력들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기획의 경우도 (학원자주화 연재물등의 예를 보라)후속 취재보도가 아닌 선(先)지적·개선의 역할을 시도하는 노력들은 가히 칭찬할만 하다. 또한 취재 기사 작성의 경우 독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던 6하원칙 기사형태를 극복한 해설기사 형식으로의 전환이 엿보이나 아직도 단순 보도체를 크게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뉴스의 소재가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이 대부분이라 이미 학우들이 보고 들어 알고 있는 사실을 단순히 스트레이트(Straight)기사로 처리하면 정보전달의 한계가 가중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각별한 노력이 투여될 부분인 것이다.

사회면에서는 기존의 비대중성을 지양하고 독자 우선 원칙의 논설 게재와 대학신문 최초의 외신란 고정의 시도가 돋보인다. 한가지 지적되어져야 할 것은 90년도 부터 증대된 사설면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즉 주관적사견이나 논리의 결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자의 주체적인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독률이 낮았던 학술면의 경우 타 부문과 비슷한 기조로 개조되고 있는데 사회면과 더불어 여기서도 유의되어져야할 사항은 「논문」의 특수성이 결코 다른 이유들로 인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화면은 올해들어 거의 모든 대학의 신문들이 공통적으로 가히 「급격한」변화를 주고 있는 부문인데 외대학보 역시 지금까지의 일부 창작활동가들에게나 필요했던 문예이론등이 사라지고 학우들의 생활저변에 침투해있는 위장된 지배논리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글 위주의 커다란 변모를 보이고 있다.

인구에 회자하는 독자들의 재치와 참여를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백지대자보」의 「성공」과 주입의 인상을 탈피해가는 서평등은 매체혁신사업의 주요 성과들 중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면별 흐름과 함께 전체적인 지면을 통한 혁신의 모습으로는 첫째, 논문, 문예글등의 대다수를 과거 외부 필자 의존에서 교내 필자 중심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교내 학술 및 문화운동의 증진,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지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 여겨진다. 또한 「흙산의 소리」라는 여론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흙산의 소리」의 경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독자의 의견에 대한 학교측이나 담당부서의 답변이 일주일의 시차를 두고 실려 독자로 하여금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면을 통해 나타나는 독자참여 강화, 외대인위주의 변화와 함께 편집상의 변화도 미약하나마 점진적 발전을 향해 가고 있다 하겠다. 홍대신문, 서울대의 대학신문, 중대신문 등의 획기적인 지면·편집변화에 비하면 비교적 미약하다 판단되지만, 반면 기존의 외대학보만의 편집스타일에 앞의 신문들의 변화에서 보여진 장점인 시각적 명시도의 증대—기사의 박스화, 부제 및 사진 크기의 확대등—를 첨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평가를 마치며

지금까지 「대중속의 신문」이 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해온 외대학보를 그 노력의 일환이었던 매체혁신사업과 그 결과로써 표출된 90년도의 지면을 통해 간략히 검토해 보았다.

몇가지 분명한 점은 이제 대학신문들은 과거의 오류들로부터 대학인의 손으로 되돌아 가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히는 신문」이 아닌 「펼쳐 읽히는 신문」이 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이다.

더불어 매체혁신이라는 현시기의 움직임들은 단지 한 차례 지나가는 대학신문의 조류나 풍조여서는 안된다. 이는 한국사회·역사로부터 객관적으로 부여된 소임을 수행해가는 일주체로 대학인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구심체로서 대학신문이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한 계속적인 사업이어야 한다.

그간의 편향과 오류로부터 지면의 개선은 물론 자신들의 혁신까지도 포괄하는 기자들의 몸부림에 격려를 보내며, 이러한 노력들 조차도 모든 학우들과 더불어서만 가능함을 다시금 강조하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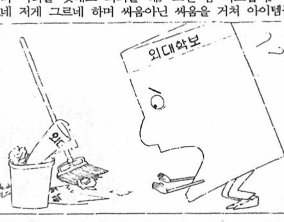
신문방송학과
커뮤니케이션 학보
편집실

서른다섯살 고백기

나 외대학보는…

내가 만들어지는 곳은 중림동의 어느 인쇄소에서야. 내가 누구냐구? 난 바로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외대교문앞과 도서관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그리고 용인의 독자들을 만나기위해 두시간남짓 왕복버스의 그 시커먼 짐칸도 마다않고 달려가는 외대학보이시다. 외대생들앞에 이렇게 모처럼 나섰으니 오늘은 나란 녀석이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골치아픈 과정을 거치는지 내자랑좀 해야겠어.

우선 나의 내용을 채우기위해서는, 매주 신선하고 그것도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것을 찾기위해서는 30여명의 기자들이 내 발이 되어주지. 과 친구도 만나고 교수님과 직원여러분도 찾아뵙고, 서점에도 들르고, 또 신문과 잡지란건 모두 뒤지고, 어쨌든 이렇게 정신없이 아이템을 찾아다닌 기자들은 나하나 만들자고 내가 태어나기 2주일전부터 학생회관에 틀어박혀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해. 그땐 참 시끄럽지. 이게 옳으네 저게 그르네 하며 싸움아닌 싸움을 거쳐 아이템들이



전쟁같은 제작과정을 거친 난데 그날로 화장지대신이라니…

통과되면 이튿날부터 전화통에 불이나도록 내 얼굴을 채워줄 필자를 찾기도 하고, 또 수십명의 사람들을 만나며 취재도 하지. 하지만 언제나 나를 만드는 이 기자란 녀석들은 원고마감이 닥친 전날 밤이돼야 정신이 번쩍나서는 온 밤을 꼬박새우며 볼펜을 굴리곤 해. 초고, 재고, 다시 수정…. 어쨌든 이렇게 몇번을 고친 기사는 그제야 인쇄소로 넘겨지지, 진짜 정신없는 북새통은 이때부터 시작이다. 틀린글자 고치고, 편집하고, 사실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제목이 어디놓이고, 사진이 어디들어가고, 글자크기가 어떻고, 하다못해 어떤 줄이 사용되는가까지 전부다 기자들이 정해야하니 정말 여간 꼼꼼해서는 안돼지. 기자들은 글만 쓰고나면 끝인 줄 알았지?

이런식으로 인쇄소에서 월요일밤을 꼬박 새워야 화요일 아침이면 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여러분손에 들어가면 나의 최고바램은 내 얼굴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들춰가며 속속들이 읽어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몰랐던 학교소식에 친구가 쓴 수필, 강의실에선 못들었던 교수님 말씀, 그리고 조금 어렵긴해도 오늘을 사는 젊은이라면 한번쯤 생각해볼 문제들을 분석한 논문…. 이 모든 걸 빼놓지 않고 읽어준다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나마 멀리떨어진 친구에게 보내는 우정의 편지 대신이 되는 경우는 괜찮은 편이고, 그 자리에서 바람에 날리고 발길에 채이고…. 막말로 더운 햇빛에 눈가리개나, 비오는 날 우산대신, 집회때의 방석이 된다해도, 일단 날 읽어만 준 뒤라면 만족하겠어. 하지만 여러분을 만난 그날로 화장실 변기에 꾸겨져 있는 나는 정말 싫다 싫어.

얼마전부터 말야, 나역시 반성을 많이했어. 내 얼굴이 너무 딱딱해 보였거나 지나치게 엄숙해 보인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이젠 내게 다소 부족했던 외대의 소식과 우리 외대친구들이 쓰는 글을 더 많이 싣기위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 또 같은 말도 알기쉽고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고민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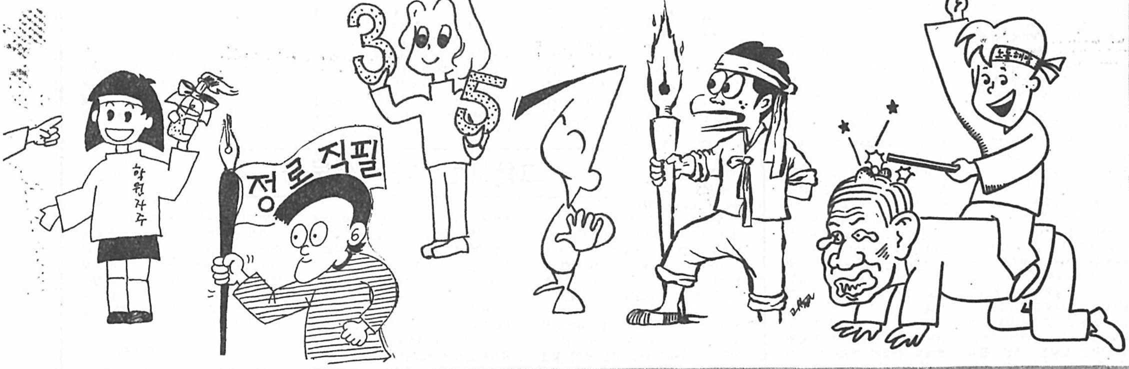
새실 뒤늦게 고백인데 나를 만드는건 기자들이 아니야. 누구냐구? 바로 여러분이 내준 등록금으로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글써주고 잘못된건 지적해주고 하니 여러분이 만든거지. 그런 나를 화장지대신으로나 쓴다면 말이 안되지.

외대…. 글쎄 누군가 외대의 자랑을 꼽으라면 누구나 『외대엔 「외대학보」가 여느 대학신문중에 최고더군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 하지만 머지 않았을거야. 바삐뛰는 기자들이 있고 열심히 참여하고 조언해주고 읽어주는 여러분이 돼준다면….

혹시 내가 지금껏 반말쓴다고 언짢지는 않았겠지? 내나이 서른다섯살에 게다가 오늘은 내 생일이나 다름없거든.

하지만 수십년후 환갑의 나이에도 여러분이 지켜줄테니 난 지금처럼 늙지 않는 젊은 신문이 될거야. 제일 젊은 신문말야. 대학인앞에 나섰을때 누구나 첫손꼽는 나 「외대학보」가 되겠다고, 내가 오늘 서른다섯 생일에 약속하지….

〈문화부〉



외대학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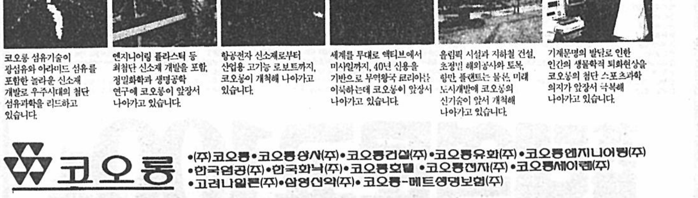
외대학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민족의 슬기와 번영의 염원— 코오롱 21세기

첨단산업과 신기술개발 경쟁이
날로 치열해져가는 지구촌의 오늘—
섬유, 화학, 기계전자, 건설, 무역 그리고 레저,
유통산업까지 주요 산업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룩해온 코오롱은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내일의 첨단산업을 앞서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민족의 슬기 모아 21세기 민족번영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의 코오롱—
열심히 땀흘려 21세기 민족 번영의
염원을 기필코 실현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오롱의 첨단기술로 펼치는 21세기 인류의 비전"



〈纖維産業〉 코오롱 섬유기술이 광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를 포함한 놀라운 신소재 개발로 우주시대의 첨단 섬유과학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化學産業〉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최첨단 신소재 개발을 포함, 정밀화학과 생명공학 연구에 코오롱이 앞장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機械·電子産業〉 항공전자 신소재로부터 산업용 고기능 로보트까지, 코오롱이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貿易産業〉 세계를 무대로 액티브에서 미사일까지, 40년 신용을 기반으로 무역왕국 코리아를 이룩하는데 코오롱이 앞장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建設産業〉 올림픽 시설과 지하철 건설, 초정밀 해외공사와 토목, 항만 플랜트는 물론, 미래 도시개발에 코오롱의 신기술이 앞서 개척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비스産業〉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한 인간의 생물학적 퇴화현상을 코오롱의 첨단 스포츠과학 의지가 앞장서 극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코오롱
•(주)코오롱 •코오롱상사(주) •코오롱건설(주) •코오롱유화(주) •코오롱엔지니어링(주)
•한국염공(주) •한국화낙(주) •코오롱호텔 •코오롱전자(주) •코오롱세이렌(주)
•고려나일론(주) •삼영신약(주) •코오롱-메트생명보험(주)

“언론·출판 자유없이 민주주의 없습니다”

기동취재

지난 4월2일 경향신문노조의 불법해직기자 5명은 민주언론수호를 위한 투쟁 1백일째를 맞이하였고 KBS노조는 정부측의 서기원사장 임명안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섰다. 또 지난 4월3일 전「힘」출판사 대표 김연인씨가 구속되므로써 올해들어 구속된 출판관련인은 13명이 되었다. 이에 본보에서는 민중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과 출판물에 대한 탄압을 통해 현정권의 언론·출판정책을 폭로한다. 〈편집자〉

『민주언론 하자는데 강제해직 웬말이냐』『강제해직 철회시켜 민주언론 사수하자』

지난 4월2일 경향신문사 사옥앞에서는 작년 12월23일 회사측으로부터 강제 해직을 당한 직후「강제해직결회및 민주경향 쟁취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하며 1백일간의 출근투쟁을 벌였던 5명의 해직기자들이 투쟁을 정리하며 경향신문사사옥앞에서 회사측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권력의 시녀 경향신문

초대노조간부 5명의 해직은, 「5공시절 정권의 홍보지」로 전락했던 경향신문이 87년6월 국민대항쟁이후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하고 지방 발송신문이 서울역에서 소각당하는 사태를 빠져린 자성의 계기로 삼은 일부 편집국 기자들을 중심으로 경향신문을민주언론으로 만들기위하여 초대 경향노조(위원장 이성수)가 88년 3월 탄생하면서 예정되었다고 할수있다.

『회사와 정권측은 87년이후 언론노조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경향노조를 파괴하려는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외면에 의한 적자와 광고수주의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자 회사는 럭키금성과 합작을 하려했고 노조도 이를 수용했으나 럭·금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측은 한국화약과 협상을 하였고, 경영의 어려움을 사내에 유포시켜 위기감을 조성했으며, 합작의 걸림돌은 강성노조라는 여론을 조성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초대노조 집행부5인의 출사(出社)는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해직을 시킨것입니다』라는 1대 노조사무장 조성환(35)씨의 말에서 이는 쉽게 확인된다.

그러나, 정작 합작협상을 했던 한국화약측은 합작조건으로 전 노조집행부 5인을 해직시켜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한다.

▲지난 4월3일 경향신문사옥앞에서 강제해직 1백일째를 맞아 초대노조간부 5명과 「전국언론노조연맹」임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

언론 해직·노조와해 공작 통한 탄압 가중
출판 필자구속·수배, 출판사수색·서적압수

결국, 이것은 사단법인체인 경향신문노조를 파괴시키고 다시 독재정치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정부측과 회사의 술수높은 탄압인 것이다.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싶습니다”

비단 신문사뿐아니라 KBS등 방송계에서도 민선사장을 강제사임 시키고 관선사장이라 할 수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선임하는등 이와같은 노조탄압음모는 가시화되고있다.

『이번사태는 지난 1월부터 「PD구속사건」이나 「법정수당」(시간외수당)지급사건등을 과장, 확대보도 하게하여 여론조작을 통하여,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려 했던 서영훈사장을 물러나게하고 새로운사장인 서기원(현 서울신문사장)씨를 임명하는 의도적인 계획속에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무임소국장 김문헌(37)씨는 말한다.

이러한 여론조작의 증거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2월8일자 동아일보는 특종보도(?)를 통해 「KBS예산 변칙지출」「허위서류작성」등을 보도했는데 이 시기는 감사원에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검토한때이기 때문에 모처(?)로 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유포했다는 의혹을 사실로 믿게끔 한다.

또한, 서영훈 KBS 전 사장이 28일 오후에 사장직 사임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이미 28일자 조간신문에는 서영훈사장이 사임한것 처럼 보도해 여론조작 성과로 사임을 했다는 설을 타당하게 한다.

한편, 방송재장악 음모를 알 수 있는것이 회사측의 주장인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한 「방송구조재개편」에 대한 정부기관개입 의혹이다.

이는 공보처 장관 최병렬의 구상이라고하는 「상업방송의 확대」와 「공영방송의 분리·분산음모」로 집약된다.

「방송구조재개편」 음모는 KBS를 송출공사, 제작공사, 지원공사, 보도공사로 나누어 노조를 약화시키고, 노조활동을 위축시켜 방송을 5공으로 회귀시키려는 음모이다.

이는 『「방송재개편」음모는 민선사장인 서영훈씨가 KBS에 남아 있는한 실시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영훈씨 개인적으로는 개인사찰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한편으로는 그들과 성격이 비슷한 관선사장인 서기원씨를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입니다』라며, 『KBS를 자회사로 분리시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한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5공때도 역할의 분업화를 통한 합리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실시되었던 한국통신공사에 송출공사를 맡겼던 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6공때 자신들이 KBS로 환원시켰기 때문에 명분이 없습니다』라고 밝히는 여성국장 이경희씨의 말에서 알수 있다.

결국, 정권의 불만은 방송노조에 집약되어왔고 방송사의 경영진들이 노조와의 대처에 있어서 정권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이고 불때 사장을 교체해 방송구조를 개편하려는 의도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와같은 6공정권하의 언론탄압은 민주역량의 성장과 국민의식의 성장으로 5공때처럼 언론탄압을 직접적으로 가하지 못하고 보다 고도화된 술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종언론을 탄압하려는 6공 언론정책의 주요 목적이 3당통합과 지자제선거, 내각제 개헌작업등 일련의 정치활동에 대한 대국민홍보활동을 원활히 하고 91년총선과 9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을 재장악하려는 것임이 분명하다.

『앞으로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언론대 반민주언론, 민주대 반민주의 싸움이 시작될때 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언론노보 정구철(28)기자의 말처럼 반민주야합을 분쇄하는 투쟁에 각계 각층에서 투쟁의 깃발을 높이 올려들고 싸워나가야할 시기인 것이다.

한편, 이와같은 언론계의 탄압과 맞물려 6공정권하에 출판계에도 탄압의 회오리가 거세게 휘몰아 치고있다.

한국출판문화운동협의회 간사 이일수(25)씨는 『출판운동이 전체 변혁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단지 인쇄매체로서의 전달만이 아닌 독자의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는 선진적인 사상과 이념을 전파하여 이론적 실천의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라고 출판물의 당위성을 말한다. 위와같은 출판문화의 활성화는 현정권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본질을 국민앞에 폭로하는 결과로 나타나기에 현집권세력은 허구적인 보수—혁신논리를 조작하여 민족, 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적 학계, 출판계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출판계에도 탄압의 회오리가……

출판에 가해지는 탄압형태는 언론과는 달리 출판사 대표, 필자, 독자및 서점주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 수배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3일 구속된 「힘」출판사 전 대표 김연인씨를 비롯해 1월10일 구속되었다가 4월6일 징역10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형성사」대표 박인혜씨및 인천광야서점대표 곽한왕씨등 올해만도 13명의 출판사 대표및 필자가 구속되었고 이정로(노동운동가), 박노해(시인)씨등 10명의 출판인및 필자가 수배중이다. 이밖에 지난 2월2일 대구지법 형사1부는 진보정치연합 대구지부 조직부장 최윤영(29)씨가 「노동조합과 전위당의 임무(김운영 편, 아침, 1988)」라는 책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출입하는 근로자들이 열람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항소심공판에서 징역10월, 자격정지1년을 선고하는등 독자에 대한 탄압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창간하여 노동자계급의 선진적사상을 창출하고 있는 노동문학사 발행 「노동해방문학(이하 노해문)」에 대한 탄압은 출판물 탄압의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측은 「노해문」이 발행목적인 「근로자 관련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문학창작과 이론및 비평을 수록, 근로자의 정서함양과 문학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3개월간 정간조치한데 이어 올해 1월11일에는 노동문학사 수색과 5만6천여권에 달하는 서적압수, 편집위원 임규찬씨에 대한 구속, 대표 김사인씨와 조정환, 임홍배씨에 대한 수배조치및 2월7일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분노」 8천여권과 그 원본및 「노해문」 5월호에서 12월호까지의 원본을 압수하였다. 노동문학사에 대한 이러한 탄압은 아직도 안기부 직원들에 의하여 사무실 감시및 도청 그리고 사원에 대한 추적과 미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같은 노동문학사 탄압에 대해 「노해문」 취재부기자 이영희(28)씨는 『본 간행물에 대한 탄압은 단순히 출판물 그 자체의 탄압을 넘어서 40년간의 단절을 뚫고 사회로 진출하는 노동자계급과 그결집체인 전노협을 와해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탄압도 정치적으로 각성된 노동자들을 쓰러뜨릴 수 없으며 바로 그런 노동자 한사람 한사람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노해문을 복간시키고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고 말한다.

한편, 이런 일련의 탄압조치에 맞서 노동문학사 사람들은 지노협및 타출판단체와의 연대투쟁및 전사원들이 「노해문 복간과 전선사수를 위한 투쟁위원회」를 결성하여 각 대학집회및 전교조, 서노협등을 방문하여 탄압의 부당성을 알리고 함께 싸워나가는 연대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위와같은 출판탄압에 이용되고 있는 법조항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표현물 제작·배포, 소지·탐독에 대한 법률위반행위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조차 부분적으로 그 위헌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행되는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통한 출판탄압정책에 대해 얼마전 집행유예로 석방된 조남일(33. 죽산출판사 대표)씨는 『새삼스러운 지적이지만 미국이나 일본, 제3세계등 모든 나라에서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저작이 금서로 묶여있던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우리나라 두곳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나라에서 출판문화를 탄압하는 곳은 일찌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라며 그 허구성을 폭로한다.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민자당과 현정권이 철저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탄압·장악하려는 의도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임에 다름 아니다.

더우기 언론자유의 몸부림은 시대적 대세이며,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에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는 싸움이며, 승리해야만 하는 투쟁이다.

〈취재팀〉
박 종 진 기자
김 태 수 기자
함 명 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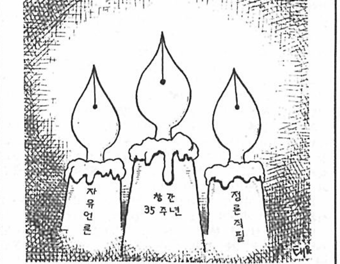
반민족적 3당야합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언론·출판인들의 단결과 민족·민주세력과의 굳건한 연대를 통해 참언론과 참다운 사상은 우리에게 요원한 꿈이 아닌 살아있는 현실로 다가와야 할 것이다.

▲최근 출판사에 대한 서적압수는 북한관계서적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고침〉

지난 536호에 실린 『전대협 탈퇴… 그 안팎사정』중 「서원대 부총학생 회장의 동아리 연합회장 폭행」에서 「부총학생회장」을 「총대의원장」으로 바로 잡습니다.

외대만평



진실을 밝히는 불꽃로 타 올라라.

기자의 눈

그룹사운드와 학생운동

『우리는 대립투쟁적 학생운동을 통한 역사의 낭비를 중단하고 …이땅에 계급적 갈등이 상존할 수 없도록 진실된 참여의 사회운동을 통해 북한 정권의 「남조선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을 위한 구실」을 척결해버리겠다.』이것은 전대협 탈퇴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대학생 민주실현 서울연합(이하 대민서련)」의 발족선언문중 일부이다.

지난4일 오후4시 광운대 「화도관」 앞에서 그 발족식이 있을 예정이었으나 이를 저지하기위한 집회로 인해 무산되었다. 6백여명의 학생들로 이미 1시부터 메워진 화도관앞에서는 「기만적 어용총학 온몸으로 거부한다」「쪽팔려서 못살겠다 민주총학 건설하자」라는 구호가 연방 터져나왔으며, 조승회(광운대 무역87)군은 『전대협 사업과정중 오류가 있다해서 탈퇴하여 다른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학도의 단결된 힘을 분쇄하려는 현정권의 음모에 그대로 말려드는 것이 됩니다. 전대협이 잘못하고있다면 우리가 직접 참여하여 우리의 대표기구인 전대협을 민주적 집단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자신의 입장을 단호히 주장하였다.

대민서련 건준위측에서는 25일 후로 발족식을 연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발족식을 원하지 않는 방해세력에 의해」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일축해버렸지만 사실상 그때 참가한 학교는 광운대를 비롯해 배화여전, 총신대 이 세학교 뿐이었다.

새로운 학생운동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대민서련」이나 각지역에서 일고있는 전대협탈퇴조짐은 단순히 학원내 비민주화에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공안정국과 총학생회선거시 제도언론등이 떠들어댄 NL—PD논쟁,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있는 정보기관 개입설등의 의혹에서 파악되어져야 할 것이다.

독재정권과 외세의 간섭하에 분단조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학생운동은 많은 한계성과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음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에대한 문제제기 또한 마땅하다. 그러나 공식행사에 그룹사운드연주가 홍보음악으로 계획되어 있고 「민중해방」의 이데올로기를 노동자의 구원종교로 해석해내리는 철저한 제도언론의 가르침속에서 등극한 「대민서련」의 발족은 명백한 백만 청년학도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진정 조국통일과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꾀한다면 카페에서 낭만을 논하거나 기타를 치며 청춘을 찬양하기 보다는 분연히 일어서는 투쟁의 현장속에서 우리스스로를 찾을 수 있을때 부끄럼없는 당당한 이땅의 청년학도임을 확인할 수 있을것이다.

〈황선혜 기자〉

※서점에서 판매중! (주)시사영어사 문의 (720)9842~3

사전없이 原作을 즐기는 동안
독해력이 부쩍부쩍 늘어납니다

영어의 기본은 뭐니뭐니해도 독해력.
독해력을 쌓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좋은 내용의 좋은 문장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향기짙은 명작만을 잘 골라놓은 「英韓대역문고 100권」—
풍부한 감동과 함께 찾아오는 영어의 새로운 즐거움이 독해력 증진은 물론, TOEFL·취직영어시험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英韓대역문고100권 목록

No.	저자	書名
1	E. 헤밍웨이	The Old Man and the Sea (노인과 바다)
2	존 스타인벡	Of Mice and Men (생쥐와 인간)
3	펄 벅	Letter from Peking (북경에서 온 편지)
4	앙드레 지드	Strait Is the Gate (좁은 문)
5	생텍쥐페리	The Little Prince (어린 왕자)
6	안톤 체홉	Chekhov's Short Stories (체홉 단편선)
7	워싱턴 어빙	The Sketch Book (스케치 북)
8	제임스 힐튼	Goodbye, Mr. Chips (굿바이, 미스터 칩스)
9	존 스타인벡	The Pearl (진주)
10	헨리 제임스	Daisy Miller (데이지 밀러)
11	E.A. 포우	E. A. Poe's Short Stories (포우 단편선)
12	조지 오웰	Animal Farm (동물농장)
13	톨스토이	Tolstoy's Short Stories (톨스토이 단편선)
14	어윈 쇼 外	Great American Short Stories (미국 단편 걸작선)
15	에밀리 브론테	Wuthering Heights (폭풍의 언덕)
16	헤르만 헷세	Demian (데미안)
17	이 솝	Fables of Aesop (이솝 우화)
18	사뮤엘 베켓	Waiting for Godot (고도를 기다리며)
19	N. 호오돈	The Scarlet Letter (주홍글씨)
20	아가사 크리스티	Agatha Christie's Short Stories (아가사 크리스티 단편선)
21	O. 헨리	O. Henry's Short Stories (오 헨리 단편선)
22	에릭 시갈	Love Story (러브 스토리)
23	리 아이아코카	The Autobiography of Lee Iacocca (아이아코카 자서전)
24	E. 헤밍웨이	For Whom the Bell Tolls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25	알베르 까뮈	The Outsider (이방인)
26	존 골즈워디	The Apple Tree (사과나무 外)
27	서머셋 모옴	The Summing Up (서밍업)
28	A. 토마스	Benji (벤지)
29	아더 밀러	Death of a Salesman (세일즈맨의 죽음)
30	펄 벅	The Good Earth (대지)
31	찰스 디킨즈 外	Great English Short Stories (영국 단편 걸작선)
32	제임스 볼드윈	Fifty Famous Stories (50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33	피터 벤칠리	Jaws (죠스)
34	코난 도일	Sherlock Holmes Stories (셜록 홈즈 이야기)
35	토마스 하디 外	Selected Modern English Poems (현대 英詩選)
36	허만 멜빌	Moby Dick (모비 딕)
37	캐더린 맨스필드	K. Mansfield's Short Stories (맨스필드 단편선)
38	E. H. 카아	What is History? (역사란 무엇인가?)
39	서머셋 모옴	Of Human Bondage (인간의 굴레)
40	D. H. 로렌스	D. H. Lawrence's Short Stories (로렌스 단편선)
41	T. 윌리엄스	A Streetcar Named Desire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42	잭 런던	The Call of the Wild (야성의 절규)
43	에릭 프롬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44	W. 사로얀	The Human Comedy (인간 희극)
45	윌리엄 골딩	Lord of the Flies (파리대왕)
46	샬롯 브론테	Jane Eyre (제인 에어)
47	T. 윌리엄스	The Glass Menagerie (유리 동물원)
48	리처드 바크	Jonathan Livingston Seagull (갈매기 조나단)
49	A. 헉슬리	A. Huxley's Short Stories (헉슬리 단편선)
50	버트란드 럿셀	The Conquest of Happiness (행복의 정복)
51	D. H. 로렌스	Lady Chatterley's Lover (채털리 부인의 사랑)
52	그레이엄 그린	The Power and the Glory (권력과 영광)
53	자와할랄 네루	Glimpses of World History (역사 이야기 - 네루의 옥중서한)
54	제인 오스틴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55	에릭 프롬	Escape from Freedom (자유로부터의 도피)
56	헨릭 입센	A Doll's House (인형의 집)
57	E. 헤밍웨이	A Farewell to Arms (무기여 잘 있거라)
58	에릭 프롬	To Have or to Be? (소유냐 존재냐?)
59	서머셋 모옴	The Moon and Sixpence (달과 6펜스)
60	마크 트웨인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허클베리 핀의 모험)
61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	The Strange Case of Dr.Jekyll and Mr.Hyde (지킬박사와 하이드)
62	하인리히 뵐	And Never Said a Word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63	J.D. 샐린저	The Catcher in the Rye (호밀밭의 파수꾼)
64	진 웹스터	Daddy-Long-Legs (키다리 아저씨)
65	프랑소와 사강	Bonjour Tristesse (슬픔이여 안녕)
66	펄 벅	Wang Lung and Other Stories (왕 룽 外)
67	발작 外	Great French Short Stories (프랑스 단편 걸작선)
68	호프만 外	Great German Short Stories (독일 단편 걸작선)
69	윌리엄 윌키 콜린스	The Dream Woman and Other Stories (꿈 속의 여인 外)
70	찰스 & 메리 램	Tales from Shakespeare (셰익스피어 이야기)
71	알프레드 G. 가디너 外	Selected English Essays (영국 수필선)
72	E. 헤밍웨이	The Snows of Kilimanjaro and Other Stories (킬리만자로의 눈 外)
73	오스카 와일드	The Happy Prince and Other Stories (행복한 왕자 外)
74	서머셋 모옴	Rain and Other Stories (비 外)
75	장 폴 사르트르	Nausea (구토)
76	윌리엄 블레이크	Selected English Romantic Poems (영국 낭만시선)
77	토마스 하디	Alicia's Diary and Other Stories (알리샤의 일기 外)
78	노만 콜린	Sunshine (선샤인)
79	어윈 쇼	Rich Man, Poor Man (야망의 계절〈上〉)
80	어윈 쇼	Rich Man, Poor Man (야망의 계절〈下〉)
81	F. 스코트 피츠제랄드	The Great Gatsby (위대한 개츠비)
82	E. 헤밍웨이	The Sun Also Rises (해는 또다시 떠오른다)
83	토마스 하디	Tess of the D'Urbervilles (테스)
84	존 스타인벡	The Grapes of Wrath (분노의 포도)
85	알렉산더 솔제니친	One Day in the Life of Ivan Denisovich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86	그레이엄 그린	The Heart of the Matter (사건의 핵심)
87	마크 트웨인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톰 소여의 모험)
88	이반 투르게네프	First Love (첫사랑 外)
89	월트 휫트먼 外	Selected Modern American Poems (현대 美詩選)
90	생텍쥐페리	Night Flight (야간 비행)
91	안네 프랑크	Anne Frank: The Diary of a Young Girl (안네의 일기)
92	찰스 디킨즈	The Life of Our Lord (주 예수의 생애 外)
93	존 번연	The Pilgrim's Progress (천로역정)
94	A. S. 푸쉬킨 外	Great Russian Short Stories (러시아 단편 걸작선)
95	아가사 크리스티	The Mousetrap (쥐덫)
96	피터 윌워드	The Wisdom of the West (서양의 지혜 外)
97	벤자민 프랭클린	The Autobiography of Benjamin Franklin (프랭클린 자서전)
98	제임스 조이스	Dubliners (더블린 사람들)
99	M.L.킹 쥬니어 外	36 Celebrities Say… (세계 최고 知性이 말하는 21세기의 世界〈上〉)
100	A. 토플러 外	36 Celebrities Say… (세계 최고 知性이 말하는 21세기의 世界〈下〉)

英韓 대역문고100권
4·6판 각권2,300원

등록 4월 9일부터

영어회화 정복의 MECCA
ELS 자매학원
Si-sa ECC
영어회화 전문코스
English Conversation Center

제29기 개강 4월23일 등록접수중!

교수진 전원 미국인 Native Speakers
전 강의실 첨단 Video/Audio 교육요새화

- 1일 2시간·주5일·4주 단위 수업
- 집중코스는 강남 ELS, 회화전문코스는 강북 ECC
- Tuition은 일반학원 수준, 교육의 질은 국내 정상급
- 다양한 학습 서비스, 풍부한 학습 편의시설과 공간
- 총 17단계 교과과정·능력별 학급편성 한 학급 정원 13명 내외·영어로만 수업진행
- 재학생을 위한 써비스
  주1회 Pronunciation Class무료강의, Writing Club, Conversation Club 등 다양한 Club활동, Self-Study Lab, AFKN Room, A.V.Room 등 학생전용의 편의시설
- 미국 Language School과 같은 학습 분위기

●강의시간

오전반	7:00~ 8:50 9:00~11:00 10:00~12:00
오후반	2:00~4:00 4:00~ 6:00 6:00~ 8:00 8:00~10:00

등록장소 : Si-sa ECC 입학안내실 (파고다 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빌딩3층)

(주)시사영어사 부설
Si-sa ECC
강북 시사영어사 외국어학원
상담전화 : (277)6812~4

HELP WANTED

- Looking for part-time help to serve delicious hamburgers and ice cream at Hobson's and Uncle Joe's Shop near the Kyobo building downtown.
- It's a great place to practice English and Salesmanship with foreign customers.
- Please call Ms. Kim Hye Jin at 794-7505 or Ms. Judy Cho at 738-3848.

Hobson's

문화논평

열린공간으로 나서는 작은 영화

——90년대 작은영화의 대중적 접목을 진단한다

최근 작은영화의 움직임

승리하는 90년대를 위한 젊은 영화예술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계절이다. 이제는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작은 영화」들이 다양한 소재를 담고 우리의 시선과 발길을 끌고 있다.

소개되고 있는 영화를 살펴보면 한국독립영화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1회 독립영화제는 학내 프락치 사건을 다룬 「친구여 이제는 내가 말할 때」 전교조 문제를 다룬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임수경양의 방북직후 가족들의 이야기를 그린 「슬픔을 자르고」등이 상영되었고, 89년 「오! 꿈의 나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장산곶매의 「파업전야」가 4월6일부터 상영에 들어갔다. 특히 「파업전야」는 대중에게 공개되기직전 검열에서 당국의 탄압이 있었고, 상영시작 하루 뒤인 지난 4월7일 오후에는 필름과 영사기를 당국에 압수당하는 등 개봉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활발해진 작은 영화운동

「오! 꿈의 나라」로 우리에게 친숙한 「작은 영화」는 독립영화, 민족영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84년 처음으로 「작은 영화」의 움직임이 일 때 「작은 영화」는 현실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 열린 영화라는 의미와 규격면에서 상업영화의 35mm와 다른, 16mm나 8mm영화라는 차이로 그 정의를 내렸다. 그후 86년도에 농민들의 삶은 담은 「파랑새」라는 8mm영화가 젊은 예술인들에 의해 제작되어 지배계층의 이념을 담은 것이 아닌 생산계층의 삶을 반영하는 비제도권 영화운동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87년6월 민주화투쟁과 7·8월노동자 대투쟁의 열기와 더불어 이전의 감상적인 문제제기에 그쳤던 영화들과는 달리 사회구조적 문제를 적극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비제도권의 영화운동은 「오! 꿈의 나라」에서 민족영화의 비약적인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민족영화는 「분단이라는 민족현실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예술이념에 기초하여 민족현실을 민중적 입장에서 형상화해내는 영화예술」로 소극적 의미는 한국영화문화의 반민족적 현실을 극복하자는 것이며, 적극적으로는 민족의 자주·민주·통일에 함께 하는 진보적 영화운동을 나타내는 가치이념을 지닌 것이다. 그간 제도권 상업영화가 예술적 가치를 창조하고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저급한 연애오락을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을 역사와 현실로부터 유리시키고, 미국영화의 시장개방압력에 의해 설자리조차 잃어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고 보면, 이제는 대중의 의식을 올바른 현실인식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우리 영화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민족의 자본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가는 얘기를 진솔하게 담을 수 있는 영화운동의 움직임은 필연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진은 최근 개봉을 앞두고 당국의 탄압을 받고있는 장산곶매 제작 「파업전야」의 한장면.

감정적인 문제제기에서 벗어나 과학적인 분석하에 형상화해야

「파업전야」의 개봉과 영화운동에 대한 탄압

이와 같은 큰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장산곶매의 「파업전야」는 87년이후 급속하게 확산·고양되어온 노동자의 의식이 노조설립으로 발전하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의연하게 맞서는 동료와 구사대로 전락한 주인공의 계속되는 갈등을 대립시키며 마침내는 점거농성후 구사대에 의해 끌려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주인공이 자신의 무지함과 이기심을 깨닫고, 농성해산에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던 노동자들과 함께 일어나 싸워간다는 줄거리로 구성된다. 이 영화 「파업전야」는 그간 노동문학에서 흔히 접할 수 있었던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계급의식 고취와 파업을 선동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필름이 압수된 상태이고 전국에 상영중지가 내려졌다. 현행 영화관계법은 필름규격 8mm, 16mm를 제외한 35mm상업영화를 규제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6mm영화 「파업전야」는 당국의 말처럼 법에 저촉되는 소지는 없다.

하지만 영화관계법의 부당함은 이런 자의적 규정 못지않게 비민주적인 영화법의 문제가 더 크다. 영화법 12조(심의)에 의하면 모든 영화는 상영전에 공연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제1항), 심의를 필하지 아니한 영화는 상영하지 못하는 (제2항)등,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되어 있다. 이렇게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와 벌칙조항은 존재 그 자체부터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법률조항으로 볼수있다. 또한 그간 공연윤리위원회의 본질이 영화에 있어서 검열과 소재제한으로 창작의욕을 억제하며 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쳐왔듯이, 이는 영화예술을 국가의 강력한 통제하에 두고 이 통제를 더욱 효율화하기 위한 감시기구이며 억압기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현행 영화법의 관련조항에서 「파업전야」에 가해진 억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90년대 작은영화의 전망

영화는 살아있는 화면을 통해 생동감있는 표현이 가능하고, 그속에서 전해오는 감동은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체다. 따라서 당국은 그 파급효과를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이용하기 위해 대중을 자극하는 저급영화만을 보급해 왔다. 대중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저급영화에 반기를 들고, 대중의 의식을 올바르게 주도하기 위한 영화운동은 작은영화창작, 영화법개정, UIP직배반대 등 다양한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다. 4월6일부터 개봉되기 시작한 「파업전야」에서 그 맥을 짚어볼 수 있는 「작은영화」는 「파업전야」에서 다뤄진 소재들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기층 민중의 생활에서 소재를 도출해내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고발하여, 저급영화에 물들어 있는 대중에게 우리 삶의 진솔한 모습속에 올바른 의식을 갖게한다는데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아직 기법상의 한계가 있는건 사실이다. 가령 과학적인 사고의 체계화가 미비한 채 단순한 현실의 고발과 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극전개와 감정적인 면에 호소하고마는 인식의 형상화는 목적이 올바른 의의를 갖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을 남게 하는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많은 자본을 들여 만든 고급 영화에 길들여진 대중들에게 다가가기에는 소자본과 소집단에 의해 힘들게 만들어질 수 밖에 없는 어설픈 화면의 「작은영화」는 아직은 많은 한계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자본은 차치하고라도 먼저 소집단창작에서 벗어나 대중과 함께 할수 있는 영화를 위한 창작집단의 활성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많은 대중들과 함께 창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화, 즉 예술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판단은 냉엄한 것이다. 어딘가 엉성한 화면 속에서 대중들은 진정한 「예술의 완성」이라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된다. 따라서 작은 자본속에서도 영화촬영기법이나 극전개, 편집 등의 고급화를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소재를 다룬 예술이라도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예술은 예술이 할 수 있는 무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제가 「작은영화」에게 아직 남아있다해도 「파업전야」와 같은 90년도를 시작하면서 일고 있는 분주한 움직임은 무척 즐거운 일이다. 이제는 대중을 위한 바른 영화를 만든다는 사명감 속에, 대중에게 더 쉽고 구체적으로 다가가고, 더 진한 감동을 주기 위한 그리고 진정한 예술의 완성을 위한 노력이 덧붙여져야 할 때이다.

〈김유경기자〉

작은것이 소중합니다 ①

화창한 봄날. 신나는 체육시간에도 다 떨어진 야구글러브, 바람 빠진 배구공으로 시간을 때워야 하는 우리. 모처럼 공부한번 해보겠다고 도서관에 가보았지만 필요한 책은 없고, '도서관 책장사이로 바람만 솔솔 불어 우리를 슬프게 하는데….

「학교 교구의 사유재산화!」「학교도서수집의 개인취미화!」를 외대생활 4년동안의 최종목표로 삼아 졸업장과 함께 유물로 간직하려는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 열사람의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외대인의 게으름은 외대중흥의 걸림돌입니다. 아직까지 학회실 구석에, 책꽂이 귀퉁이에 먼지 쌓인채로 몰래몰래 숨겨뒀던 외대인 모두의 물건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외대의 품안에 되돌려줍시다. 외대사랑의 첫 걸음으로….

〈문화부〉

이번호 부터 본보 문화면에서는 외대인이 자칫 사소한 일로 지나치기 쉬운 잘못된 생활문화를 바로 잡기위한 캠페인 「작은것이 소중합니다」 난을 신설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말의 쓰임새 (182) 주니나다

얼마 전 한겨레신문의 한겨레논단(윤정모, 「양심수와 그 아들」)을 읽다가 눈에 들어온 「주니나다」라는 표현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새롭게 해주었다. 공부를 하다 싫증이 나서 한눈을 팔다보면 『벌써 주니나서 해찰하는구나』하시던 할머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주니」는 「몹시 오래 끌어서 느끼는 싫증」을 뜻하며, 「주니나다」는 「부질없이 오래 끌어서 싫증이 생기다」라는 뜻이다. 「지루하여 싫증을 내다」라는 뜻으로 「주니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고침) 지난호 (537호) 9면의 「우리말의 쓰임새를 맡으며」 기사중에서 잘못된 표기인 「이 란」과 「인구(印舊)어」를 「이 난」과 「인구(印歐)어」로 바로잡습니다.

TV 그것은 현대인을 지배하는 우상인가

첫번째 교양프로

6·10국민항쟁에 따른 6·29선언 이후 부분적인 정치적공간의 확대와 함께 나타난 현상중 하나가 TV에 있어서 교양프로그램의 확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확대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의 한계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처음의 기대에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토대가되고 있다.

일정정도 정착된 토론프로그램인 「심야토론」(K-1TV 밤 10시 30분)의 경우 사회적 쟁점이 되는 내용을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전화참여를 도입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는 하나 그러한 형식적 장점이외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토론참가자 구성의 불균형을 비롯하여 사회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편파적 진행(일방적인 발언제재, 자의적 결론도출)과 적합치 못한 주제에 대한 무리한 토론진행(3월17일, 의식의개혁-신사고), 현실적인 면을 도외시한 이론편향의 토론(3월24일, 금융실명제)등 진행상, 내용상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특히 3월31일 방송된 「북방정책」토론에서는 동구권연수학생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국민적합의」,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편파적 시각등을 도출해 냄으로써 사회자가 지켜야 할 중립적자세와 객관성유지를 의심케 한다.

어릴 때는 만화영화 보며 웃고, 조금커서는 드라마·쇼프로에 하루를 묻고, 머리가 굵어서는 토론, 다큐멘타리를 보며 밤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외대학보에서는 TV라는 매체의 비평을 통해 잘못 주입되어온 지배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교양·쇼프로, 드라마, 결론 등 모두 4회로 이루어지는 연재 「TV 그것은 현대인을 지배하는 우상인가」에 독자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편집자〉

객관성속에 묻힌 지배의식

이러한 진행자에 있어서의 문제는 토론프로그램 이외에도 많이 나타난다.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통일의 디딤돌로 나서고자 한다는 「통일전망대」(M-TV·밤11시30분),「남북의 창」(K-1TV·화·밤10시)등은 진행에 있어 민족의 이질감을 의도적으로 조장시키는 면이 농후하게 나타난다.

3월중순에 방송된 통일전망대를 예를 들어보자. 「분홍꽃 아카시아」라는 북한TV물을 방영함에 있어서 아카시아가 사료로써 경제성이 크다는 점과 북한의 원료자급정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사료가 부족하여 아카시아꽃 마저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실정이다』라는 진행자의 자의적 첨언은 내재된 방송의도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위프로그램에서 나타는 진행자의 문제 외에도,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건설을 위한 부지선정의 일환으로 갓 시작된 북한과 소련의 공동탐사를 「북한의 핵무기생산준비」라는식의 보도로 오해의 여지를 남긴 것을 들수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핵무기생산과 관련된 농축우라늄을 자체생산하게된 남한측 실정과 비교해 볼때 한반도에 제기되는 무기의 핵 위협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떠넘기려는 의도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비해 르뽀형태의 프로그램인 「인간시대」(M-TV 월·밤8시)와 「현장기록-요즘사람들」(K-1TV 금·저녁7시40분)은 자칫 전파문화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층민중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시청자들의 많은 공감을 얻고있다.

특히 2월12일 방송된 인간시대(여성재활원장의 법정투쟁)의 경우 현실과 괴리된 그린벨트정책에 의해 영세운영을 하던 모범재활원의 원장이 재판정에 서게 되는 과정을 방송, 법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을 표면적 혹은 감정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점과 사회집단의 문제를 개별화, 객체화 시킴으로써 근본적인 사회구조적 문제를 도출해 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시킨다. 2월과 3월에 걸쳐 방송된 「평화, 멀지만 가야할 길」역시 제작의도와 취재폭, 내용(분단, 공해문제)에 있어서 의욕적인 면이 두드러지긴 하였으나 문제점의 평면적 나열과 외국과 우리나라의 단순비교형태에 있어 위에 지적된 한계가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이산가족의 아픔을 한필성·한필화남매의 만남을 통해 다뤘던 「인간시대」(3월26일, 4월2일)역시 통일문제를 이산가족의 아픔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분단의 본질적접근에 있서는 아쉬움을 남겼다.

르뽀형태의 프로그램이 갖고있는 또하나의 문제점은 현실순응의 모습을 미화시키는 점이다. 4월6일에 방송된 「현장 기록-요즘사람들」(부제:고향으로 돌아오는 온산주민들)은 수입개방과 온산공단의 공해로 피해를 입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소개해 소재에 있어서는 시기적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렵게 살아가는 주민의 생활에 대한 『무엇인가 몸을 던져 살아가는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가』라는 나레이션은 주민의 이해와는 전혀 동떨어진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각계각층의 민주적 요구와 함께 방송민주화의 기치를 내걸은 언론노동자의 노력이 그동안 제한되었던 소재의 폭을 넓힌 사실을 K-1TV의 「제6공개홀」의 발전이나 새로운 생방송 프로그램인 M-TV「여론광장」등 교양프로의 확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 해직교사문제를 의욕적으로 제작했던 「도교사의 선택」(K-1TV 3월21일)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재재조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직도 대중을 위한 전파들에 대한 높은 벽이도처에 「제도」라는 틀을 쓰고 존재한다. 특히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된 현재의 실정에서 방송의 교양자적 역할보다는 상업성에 근거한 오락프로의 상대적 증대가능성은 클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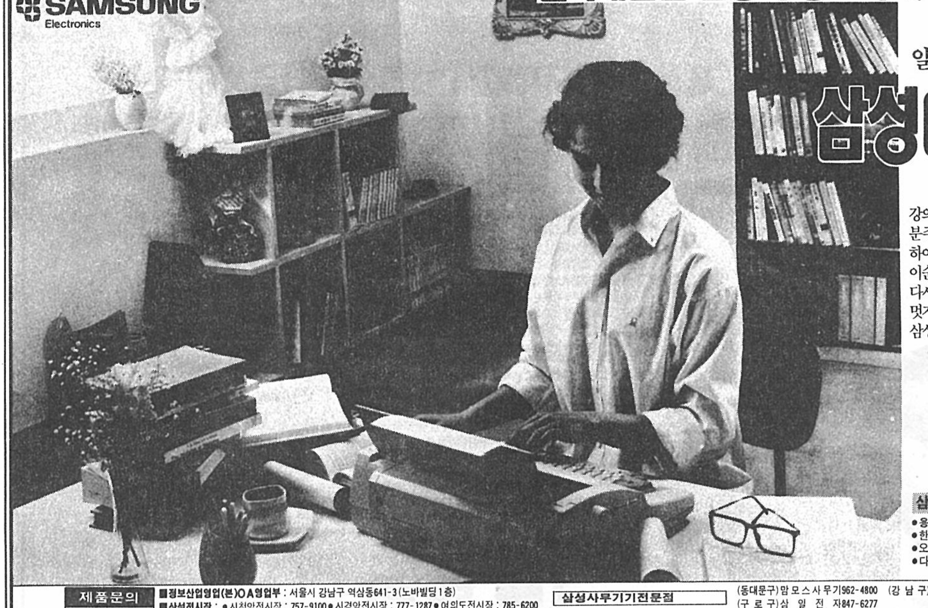
실질적인 국민여론수렴의 창구로서 자리를 잡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계속적인 노력과 함께 전파문화의 주체로서 시청자의 견해적 역할이 통일적으로 작용할때만이 위 문제점의 본질적 극복과 더불어 부수적 대안(다큐멘타리 국내제작의 강화, K-1TV의 교양프로확대 등)을 내용적 결과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본교 동아리 〈언론문제 연구회〉

SAMSUNG Electronics

전자제품은 삼성이 좋습니다

외대학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알차게 보내야할 대학생활, 그래서 더욱 필요한 —

삼성 전자타자기 하이터치

강의듣고, 자료찾고, 친구만나며
분주히 뛰어다닌 하루 —
하이터치로 내일의 리포트를 준비하는
이순간은 가장 알찬 나의시간.
다시없이 소중한 대학생활을
멋지게 노트해봐야지
삼성하이터치와 함께 —

삼성하이터치 TQ-120의 다양한 기능
- 용지폭 12.5인치
- 한글·영문 혼용/겸용
- 오타자동수정(한글·영문 1 Line)
- 다양한 글씨체(영문 12체, 한글 3체)
- 굵은글씨 타이핑기능
- 자동밑줄긋기
- 100V/220V겸용

*권장소비자가격 : ₩253,000

휴먼테크 삼성전자타자기

삼성전자

제품문의 559-4721~4

■정보산업영업(본)OA영업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641-3(노바빌딩1층)
■삼성전시장 : ●시청앞전시장 : 757-9100 ●시경앞전시장 : 777-1287 ●여의도전시장 : 785-6200 ●구로전시장 : 847-6277 ●역삼전시장 : 561-2700 ●유명백화점사무기코너

삼성사무기기전문점
●서울 : (중 구)삼성사무기기777-1287 (서대문구)경 기 O A720-7788 (동대문구)맘모스사무기962-4800 (구 로 구)삼 일 전 자847-6277 (강 남 구)(주)삼성애니파540-5477 한 일 상 사548-7062 (강 남 구)(주)서도실업561-2700 (주)프로메이커561-0660 중 앙 기 기546-0089 (영등포구)(주)삼성애니파678-4618 (시 흥)우성사무기807-4521 ●의정부 : 고려시스템 43-1689 ●안 양 : 대성사무기 42-8514

중흥외대 / 학원자주화, 그 올바른 방도를 제시한다

〈6〉 대발추위 건설에 대한 제언

단일적 체계로 합리적 행정을

현재의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체제로는 학원자주 어려워

학원 구성원 협의 속에 공동체적 대발추위 건설 시급

보도기획

(537호에서 계속)

「총장선출」「교과과정 조정」이외에도 학원3자가 모두 참여하지 못한체 학교 당국이나 재단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민주적 학사행정으로 「예산집행」을 들수있다. 예산집행은 학사행정 어느부문을 막론하고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어 구성원들의 의사반영이 가장 많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교수협의회에 구성된 「예·결산 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을뿐이며 더구나 임의단체인 교수협의회 산하기구로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며 직원·학생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예산안이 실질적으로 학내구성원들의 의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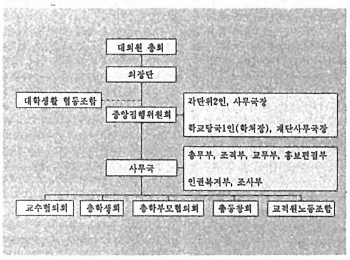
④조선대의 대자협

이상에서 간략하나마 본교 학사행정의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았다.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체 행정이 학교당국에의해 일방적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학교행정에 교수·직원·학생이 참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학발전 추진 위원회(이하 대발추위)」(가칭)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제 대발추위의 위상과 구성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본뒤 본교 대발추위 건설의 문제점을 알아본다.

대발추위는 대학과 관련된 모든 집단·모임—교수·학생·직원·학부모·동문—이 학원의 주체로서 학원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대학 최고 의결기구」라고 말할 수 있다.

우선 조선대에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자치운영 협의회(이하 대자협)」의 조직체계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조선대의 대자협은 〈표〉에서 알수 있듯이 대학구성원 5개 단체의 「단위조직」과 각 단위조직의 대표가 모여 실질적으로 학교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와 집행을 수행하는 「중앙집행 위원회」의 큰축으로 구성돼 있다. 대자협은 이러한 민주적 체계로 구성된 조직으로 박철웅 전총장재산 환수투쟁, 범국민 위원회건설 기금조성사업, 예산편성및 감사참여 사업, 등록금 책정위원 구성 등의 「물적토대 구축 사업」과 대학생활 협동조합을 통한 「후생복지 증진사업」 이사개편사업, 학칙개편사업등의 「민족대학 건설사업」등을 벌여나가고 있다. 대학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조직체계를 세우고 학원자주화 사업을 점차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조직 체계〉

⑤본교의 대발추위

이제 조선대의 대자협과 같은 본교 대발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본교에서 대발추위 건설을 제안한 구성원은 직원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로 노조측은 『교수·학생·직원이 일단 모여 대발추위 건설을 위해 구체적인 의논을 할수 있는 장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혀 현재 학내 구성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전무하다는 본교의 난점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발추위 건설에 앞서 학원 자주화 사업을 주체적으로 수행해 나갈 「학생실무위원회」를 만들고 강화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지난 등록금 타결당시 합의된 학원 민주화 사항에 따라 4월 중순경부터 90년도 예산안 심의에 각 단대 1인씩의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게 되는데 이 대표들을 중심으로 이후 학생실무 위원회가 구성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본교 대발추위는 아직 제안에 불과한 상태이며 더구나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족은 대발추위 건설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 노조측의 주장대로 각 구성원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가 부재하다는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본교 구성원들의 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던 것은 지난해 말부터 20여차례에 걸쳐 진행된 「등록금 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아직 구성원들의 모임은 극히 미진한 형편이다.

또한 전체 학생들의 학원 자주화에 대한 인식부족도 시급히 해결돼야겠다. 총학생회는 학원 자주화가 지엽적인 복지 개선이 아닌 학원 구성원들의 일상적·정치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과정임을 일반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겠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본교의 비민주적인 행정체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위한 대발추위 건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본교 대발추위가 건설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각 구성원들 모임의 활성화와 실무위원회의 건설, 그리고 대발추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면 대발추위 건설의 기반을 닦는 일이 본교에서도 서서히 진척될 것이다.

〈임재권기자〉

떡 됐 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는

—금융실명제 확실히 저지하고, 지역구사업으로 부징축재 좀하구.

정씨가 사퇴하지 않았더라면

—피터지게 싸우다 대구서 갑까지 뺏겼겠지.

의원40명 동원, 몇십억씩 뿌렸다는데

—당연하지. 그렇게 안하고는 이기지 못해.

이번 선거결과에 만족하는가

—이렇게 땀빼지는 미처 몰랐어. 음성·진천선거에서는 떡됐데.

이상은 「거짓말탐지기」로 알아본 민자당 문×갑후보의 가식없는 발언이었습니다.

○··4명의 학우가 탈진으로 병원에 실려가는등 사태가 심각한데도 정작 책임자인 학교측은 꽃 한송이 보내기는 커녕 무정하기 그지없다는데.

학과의 위상을 실추시킨 학교측의 졸속 행정에 총장실 단식농성에 들어간 경·정과 학우들, 총장실 책상위에 백합까지 꽂아 주는등 예의바른 투쟁에도 학교측은 궤변만.

이에 단식중인 모 흡산 『꽃병에 있는 백합 한송이가 점점 시들어 갈수록 결의는 더욱 굳건해 질것』이라며 가녀린 손에 힘줄을 당겨.

○··얼마전 이문총학에 안기사(안기부의 사자) 프락치가 침입하더니, 「대자보 문화」로 일컬어지는 대학의 대자보에까지 그 마수가 뻗치는 모양.

그간 때지난 대자보를 붙여두었다는 말이 나돌게마자 학교 ××과에서 벽에 붙여놓은 대자보 이것저것에 손을 대다, 제주향우회가 마련한 「4·3항쟁추모전시회」 자료들을 감쪽같이 없앴다는 것.

없앤 당사자 무얼 알아 그랬겠소. 뒤에서 시킨사람들은 「대자보 소각과 게재 비례의 법칙」을 깨달아야할사(事).

크로니클

○··최근 왕산골에 「한민족」임을 거부하는 몇몇 몰지각한 학생들로 인해 연례행사가 엉망이 되고 우리손으로 만든 「민족의 표상」이 수모를 겪었다는데.

동아리진군식 도중 동아리 ×××회장이 신앙심을 빙자하여 고사상의 돼지머리를 뒤엎었고, 그 며칠뒤에는 누군가에 의해 장승의 이빨이 난자당한 채 내팽겨쳐진 기막힌 일이 그것이라고.

여보시오 모(某)회장, 무얼 진정으로 믿는지 모르겠으나 그분 계율에 남의 일 훼방놓으란 단서는 없음을 각인하시압.

○··4월4일, 수요일, 날씨 흐림.

막차를 찾는 발걸음이 오늘처럼 천근만근 무거울 수가 없었다. 오늘 새벽 캄캄한 하늘에 새겨진 저 별이 너무도 밉다.

생산1과 조수 강민호 형의 별이다. 노동을 사랑해 찾아왔다면 그 사람, 끝내 열악한 노동조건에 희생돼 7일간의 참삶이 알루미늄 제조하는 롤러 속으로 사라졌다.

산업평화! 늑대들의 합창. 저주스럽다.

이 어둠을 부수기 위해 끝내 별빛이 된 민호형의 넋은 이땅 모든 노동형제에게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노동일기

인 터 뷰

주체적 삶을 통한 대학자치의 실현

통일적 관점속에서 학원자주화 사업들을 추진하고, 학교운영의 단일체계 형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들이 본교에서도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에 현재 대학운영의 모범적 자치체제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조선대학교를 찾아, 학생회의 한 간부를 만나 보았다.

〈편집자〉

조선대학교 학원자주화학생위원회 위원장 박종국(행정·4)군을 만나…

▲요즘 조선대의 학원자주화투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학원자주화학생위원회」를 구심으로 학원자치권 확보와 민주총장 사수의 강한 열의속에 올해도 학원자주화투쟁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7년 학원자주화투쟁 당시 제기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알고 싶은데요?

—대자협의 제기는 87년 1백13일간의 장기 농성속에서 대학의 주체가 누구이며 대학내 주체가 자주성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 속에서 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그후 총학부모협의회 구성이 당면사업으로 상정되었고, 그후 10월말부터 단과대학 10개 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되고 11월15일 총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들도 양심선언을 통해 학원민주화투쟁에 돌입하여 민주교수협의회를 구성하였고, 교수협의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본교 12만 동문들도 학원에 대한 책임성을 통감하고 동문회를 구성하여 학원민주화투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2만여 학우, 교수, 학부모, 동문은 민정당, 문교부방문투쟁을 전개하고, 88년 1월8일 결사투쟁 결과 2월19일 대학자치운영이라는 기치하에 대자협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학자치의 실현에 있어 가장 발전적인 자치형태로 평가되고 있는 대자협의 위상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자협은 민족대학의 건설을 위해 대학주체인 교수,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의사개진및 대학의 전망과 정책을 제시하는 민주적 대학운영에 있어서 최고 의결기구라는 위상을 지니게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역할 부문에 있어서 대자협은 조선대학교라는 대학을 매개로 학생, 교수, 학부모, 동문이 자기주체를 실현하고자 하는 주체의식의 발현이며, 자치운영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주체적 행동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대자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주요사업의 성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철웅씨를 퇴진시킨 이후, 학원의 구심체를 우뚝세워 내는 것은 대자협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자협에서는 학생들의 수업거부및 등록금 연기투쟁에 이어 교수협의회의 농성을 통하여 이돈명교수를 본교 총장으로 영입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책정위원회」를 구성, 학교당국과 공동 합의속에 등록금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보았고, 전국 최초로 예산을 전년 공개하였으며, 89년 이후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자주화투쟁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 새학기에 학생조직내부의 3개 특별기구의 발전적인 통합을 추진하였다는데….

—예, 기존에 학원자주화투쟁의 구심체인 3개의 특별기구(대자협학생실무협의회, 학생소비조합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를 이번에 하나의 단일적 체계들로 묶어내면서 학원의 자주화, 대중간부의 주체혁신, 사업에 대한 전체공유, 사회민주화투쟁 노선을 견지하는 학원자주화투쟁체로 변모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산재해 있는 학원자주화사업을 어느 한 조직체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총학생회로 총집결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담보해내고자 「학원자주화학생위원회」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자협의 발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인간중심교육, 민족자주교육 실현의 주인이 바로 교수, 학생임을, 그리고 주인이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적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대자협의 강화, 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조직적 토대로써는 대자협 구성단체의 단위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단위조직을 구성하는 하부조직의 내실있는 발전을 이룩하는 것으로써, 정치적 주체역량의 강화 역시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영조기자〉

럭키금성

기초원료, 생활·산업자재에서 첨단 미래산업까지——

풍요한 생활을 창조하는-럭키

생활·산재부문
■프라스틱 1사업부 : 하이샤시, UBR, SMC물탱크, 온돌파이프, 자동차부품 등
■프라스틱 2사업부 : 모노륨, 럭스트롱, 노브롱, 카펫타일, 민속장판, 비닐벽지 등
■생활용품사업부 : 수퍼타이, 하모니, 페리오치약, 차밍샴푸, 알로에비누, 퐁퐁 등
■화장품사업부 : 아르드포, 미네르바, 에상스, 헤레나루빈스타인, 카이저 등
■정밀화학사업부 : 분산염료, 무공해농약원제, 계면활성제, 그라스 화이버 등
■의약품사업부 : 인터페론, B형 간염백신, 인간성장호르몬, 식품첨가제 등

화성부문
■화성 1사업부 : PVC 스트레이트 레진·페이스트 레진, PVC 컴파운드 등
■화성 2사업부 : DOP, 옥탄올, 부탄올, 아크릴레이트, 아크릴산 등
■화성 3사업부 : ABS 레진, SAN 레진, PS레진, EPS 레진 등
■엔지니어링프라스틱사업부 : PMMA, PBT,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컴파운드 등
■폴리에틸렌사업부 :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초저밀도 폴리에틸렌 등

국내외 합작회사
＊Lucky Allied Plastics Corporation
＊Lucky Fiber Glass Corporation
＊Lucky Dow Chemical Ltd.(EPOXY)
＊Lucky D. C. Silicone Co., Ltd.
＊Lucky Hoechst Corp. (HDPE)
＊National Plastic Co. (Saudi Arabia)
＊Henkel Rika Sdn. Bhd. (Malaysia)
＊Lucky Palmco Sdn. Bhd. (Malaysia)
＊Thai Wah Lucky Chemicals Co., Ltd. (Thailand)

럭키
LUCKY LTD.

외대학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서울 제24대 총학출범

학우와 함께하는 민주총학건설 선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4월4일(수) 노천극장에서 임수경대표 어머니와 이강혁총장을 비롯, 1천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 및 총학생회 해오름식」을 열고 제24대 총학생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1부 정기총회에 이어, 2부 출범식으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부총학생회장 박상근(서양·영어4)군은 『4개월간의 등록금 투쟁이 학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일단락 지어졌다』고 한뒤, 『등록금 투쟁을 교육재정확보와 대문교부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부위원 소개와 운영위원 소개등이 진행된 이날 출범식에 서총련의장 유진호(고려대 총학생회장)군은 본교 총학생회의 출범을 축하하기위해 참석, 『반민중적·반통일적 3당통합 분쇄를 위해 외대가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할 것』이라고 인사를 대신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4월4일(수) 노천극장에서 「정기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등록금투쟁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이후 민자당분쇄투쟁에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강조하고, 총학생회 사업에 있어서 대중성확보를 결의한 이날 출범식에서 총학생회장 김기석(동양·아랍어4)군은 『모든 사업을 학우들과 의논, 집행하는 민주적 총학을 건설할 것이며 등록금투쟁성과를 계승, 외대 사랑 차원에서 학원자주화 사업을 벌일 것』을 밝힌뒤 「4월 투쟁선언문」을 통해 『이후 친미보수야합 민자당 분쇄투쟁에 총력을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3부 대동놀이는 추운날씨로 학생들이 빠져나가 무산되기도 했다.

대생협, 학생회관식당 인수

소비와 판매의 건전한 풍토조성

용인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이 오는 90년 2학기부터 「대학생활 소비자 협동조합(이하 대생협)」으로 인계, 대생협직영으로 운영되며 승차장매점은 지난 4월4일(수)자로 대생협이 직영, 운영하고 있다.

대생협은 지난 2월26일(월) 학내식당및 매점등을 대생협직영으로 운영할 것에 관해 학교측에 건의, 3월30일(금) 학교측으로부터 학생회관식당과 승차장휴게실을 직영화 할것등의 결정내용을 회신 받았다.

이번 직영화에대해 대생협은 『판매수익금을 다시 재투자, 질과 가격에서 종전보다 나은 시설을 만들 수 있을것』이라며 『전교조 물품판매등을 통해 소비와 판매의 건전한 풍토를 조성, 생활문화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학생회관 식당이 2학기부터 직영화 되면 대생협은 기존 자판기, 복사기 직영과함께 교양관, 자연대매점등 5개의 학내식당과 매점을 직영, 운영하게돼 더욱 활발한 수익사업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범대 학생회 「교육사랑」 발간

서울캠퍼스 사범대 학생회는 지난 4월6일(금) 단대신문 「교육사랑」 제2호를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교육사랑에는 △서울지역 사범대협의회소개 △모범학회, 한국어 교육과의 「국어학회」를 찾아서 △이중형군의 옥중서신등이 실려있다.

이사람

순수한 자연보호를 탈피해 구체적인 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보호를 위해 26명의 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환경보호모임 「알섬초동」이 지난6일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신규동아리로 등록되었다.

『학생들 대부분이 알섬초동이 무엇을 하는 단체이며 무슨 뜻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토로해오고 있는데 「알섬」은 「물새들이 알을 품으러 모여드는 작은 무인도」이고 「초동」은 「나무를 하는 아이」』라고 알섬초동회장 민병진(인문·철학3)군은 그 뜻을 말한다.

지난해 반핵전시회와 핵발전소폐기를 위한 서명작업을 벌여 많은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얻은바있는 민군은 『학내식당 휴게실에서의 금연홍보, 휴지안버리기 캠페인, 식량의 위생환경 조사등 작은 부문으로부터 시작해 외대학우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며, 『향후 사회운동으로서의 환경보호를 위해 공해추방운동 연합회에 가입된 타대학 동아리와 연대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인다.

작년 여름, 식수오염에 관련된 TV프로를 본후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민군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염량의 증가는 지구의 오존층을 점점 엷게 만들어 지구전체 인류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차원이 아닌 환경공해적 차원에서 핵문제, 공해문제를 다루어 나갈것』이라고 말한다.

『생존과 평화의 외침 반공해 반전 반핵!』

〈용인캠퍼스 「알섬초동」 회장 민병진군을 만나〉

『지난해 정부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산화티타늄 생산업체인 미국의 듀퐁사에게 등록허가를 내주어 울산에 자리를 잡게 된데서 알수있듯이 우리나라 환경오염은 이제 단순한 사회문제의 차원을 넘어 국가간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상태』라며 그 심각함을 강조한다. 이어 민군은 『우리 알섬초동은 반공해, 반전반핵 뿐만아니라 근로환경 개선, 농약문제등 사회 각부분에서 올바른 개선의 추구를 위해 노력할것』이라며 『이에 실천적인 사업으로 우리학교의 근처에 위치하고있는 성남노동조합연합회의 노동자를 초청하여 노동자의 작업환경을 직접 듣고 연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환경문제는 비단 살만하고 배부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중들이 더욱 가슴깊이 느껴야 할 문제』라며 『민중적이고 대중적인 틀속에서 환경오염문제 인식의 확산을 위해 우리 알섬초동은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말하는 민군은 마지막으로 알섬초동의 으뜸 구호를 힘차게 외친다.

『생존과 평화의 외침, 반공해 반전반핵!』

〈이욱희 기자〉

서울 용인 민자당 규탄대회 개최

시위과정중 4명연행되기도

서울·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주 각각 민자당과 4·3제주항쟁관련 집회를 열고 「반민주 친미야합 민자당 독재분쇄」와 「4·3항쟁 계승」등을 결의하였다.

서울캠퍼스는 어제(9일) 오후3시 6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친미보수야합 민자당 일당독재 분쇄및 전투적 노학연대를 위한 애국외대실천대회」(이하 실천대회)를 노천극장에서 열고 약3시간동안 교문앞 시위를 전개하였으며 시위도중 정과대 학생회장 권한대행 이건(정외3)군등 4명이 연행되기도 하였다.

오늘, 전대협총회에 참석중인 김기석총학생회장의 7천애국외대학생에게 드리는 글, 민중운동·노동운동탄압사례발표, 투쟁선포문낭독순으로 진행된 이날 실천대회에서 총학생회 사회부장 김시용(동양·아랍어4)군은 『정치적으로는 5공독재로의 완전한 복귀, 경제적으로는 임금동결, 전세값인상, 군사적으로는 군비확산, 사회적으로는 양심수의 확대, 민생치안의 부재등이 나타나는 민자당독재는 민중을 탄압하고 장기집권을 노리는 반민주 반통일 친미야합』이라고 규탄하였다.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4·3항쟁기념식및 반민자당 투쟁선포식」을 지난 4월3일(화) 오후1시 어문대 앞 해방광장에서 3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추도시, 항쟁의 의의, 추모가등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학생들은 왜곡된 4·3항쟁의 진실을 계속 폭로하고 현재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함께 진행된 투쟁선포식에서 총학생회장 이영록(동학·아프리카어4)군은 『민자당 결성을 반드시 분쇄해내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위해 총분기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총학생회는 연행학생과 관련 회의를 열고 오늘(10일) 오후3시 도서관 앞에서 「연행학우 석방 촉구대회」를 준비중이며 서양어대 학생회장을 대표로하여 청량리 경찰서로 항의 방문단을 보내기로 하였다.

또,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 연합(이하 용성총련)」은 지난 4월 4일(수) 오후4시 성남신구전문대에서 「민자당 성남지구당 결성배회저지및 용성총련 4월투쟁 선포식」을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 「민자당 야합을 용성총련의 단합된 힘으로 분쇄할것」등을결의하였다.

서울 영어과 도서관 열람실 개관

서양어대 영어과는 지난 4월4일(수) 「영어과 도서관 및 열람실」을 개관했다.

이전까지 영어과 학생회실로 사용돼 왔던 본관 214호실을 개조, 전공관련 서적 2천8백여권이 소장된 영어과 도서관은 영어과 학생들에 한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관되며 대출은 불가능하다.

인문대 학생회 학생총회·체전개최

인문대 학생회는 오는 4월13일(금)인문대앞 광장에서 『인문대정기학생총회』를개최한다.

이날, 총회는 89년도 결산발표와 90년도 예산안 확정, 학생회 임원소개등을 내용으로 진행되며 이후 4백여 인문대 학생들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가 인문대앞 소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이다.

용인 동아리대표회의 개최

신규동아리로 알섬초동 선정

용인캠퍼스 동아리 연합회는 지난 4월6일(금) 오후6시 학생회관 휴게실에서 전체 49개 동아리중 35개 동아리 대표자가 참여한 가운데 「동아리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신규동아리에 「알섬초동」을 선정하였다.

△신규동아리 등록 △주체8대 동아리 권익 쟁취 위원회 발족합의 △C.C.C 제재조치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알섬초동」은 34표의 찬성으로 학술 제1분과 소속 정식 동아리가 되었다.

이어 대표자들은 학생회관 누수, 예산지원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다음주중으로 「동아리 권익쟁취 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지난 3월30일(금) 동아리연합회 출범식에서 고사상에 오른 돼지머리를 엎어 고사를 방해한 C.C.C회장에게 제재조치로 1학기동안 대표자 자격을 박탈 할것을 의결했다.

뉴스레터지 4호 발간 「외대소식」 제목변경

지난 89년 봄부터 계획, 8월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제목으로 창간호가 나온 본교 홍보용책자 뉴스레터가 「외대소식」이라는 새로운 제목으로 지난 3월30일(금) 발간되었다.

기존 1만5천부 발간에서 3만부로 증가, 제학생에게도 배포를 시작한 「외대소식」지는 본교 교수들의 연구성과와 학풍, 학교소개, 동문소개등이 실려 대외 홍보용으로 많은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월에 나온 봄호까지 4호가 나온 「외대소식」지에 대해 홍보과장 임종규씨는 『외국어를 통해 외대가 나라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불구하고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외대를 홍보코자 이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제 1 차 단체교섭 열려

교섭일정5회로 합의

「90년도 단체협약에 따른 제1차 단체교섭」이 지난 4월6일(금) 오후 6시부터 1시간30여분 동안 구내 귀빈식당에서 열려 이후 일정이 확정됐다.

총무처장을 비롯, 대학측 교섭위원 6인과 노조측 교섭위원 13인이 참석해 상호 기조발언을 하는 한편, 교섭일정을 논의, 5회로 단축시킬 것을 합의한 이날 교섭에서 학교측은 대표인 총장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구비하지 않아 노조측으로부터 『종전의 자세와 인식에서 전환하여 신뢰를 바탕으로한 미래지향적인 단체협약을 창출하자는 학교측의 의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노조측은 교섭과 관련해 『단체협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학교측에 촉구하였다.

오늘(10일) 오후 5시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2차교섭은 노조측의 협약 전반에 걸친 학교측의 의견이 개진될 예정이다.

서울 총학생회 학술부

「5.18」10주년 기념 논문·독후감 공모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술부는 오는 5월1일(화)까지 「5·18광주항쟁 관련 논문, 독후감」을 현상 공모한다.

5·18광주항쟁 10주년을 맞아 광주항쟁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한 논문과 독후감을 모집하는 총학생회 학술부는 『신입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각과 학회나 소모임을 통해 집단적으로 연구, 조사해 완성시킨 작품이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논문과 독후감 당선 상금은 각각 10만원과 5만원이다.

*영화상영안내〈4월10일(화)~4월16일(월)〉

날짜 \ 영화명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10일(화)	대호출격	채플린 걸작단편
11일(수)		
12일(목)	고스트바스터 (Ghost Busters)	태양의제국(Empire of the Sun)
13일(금)		레인맨(Rain Man)
16일(월)	뜨거운 양철지붕위의 고양이(A Cat on Hot Tin Roof)	모스크바는 눈물을 믿지 않는다.
상영시간 및 장소	매일 오후2시 시청각실 비데오룸(2202호)	매일 오후2시 어문학관 비데오룸(1406호)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직원 동정

◎노조 단체교섭위원 2명변경 발령

본교 노조는 개인사정으로 단체교섭에 임하기가 불가능해진 명기선, 조예순 교섭위원 대신으로 조동석(서울 도서관 안내실), 윤은숙(자연과학대 교학과) 조합원을 새 단체교섭위원으로 임명하였다.

◎본교 교직원 6명 모범예비군 표창받아

본교 이윤배교수(경영정보학과), 이장희교수(법학과), 손천수수석 부조합장(서양학대 교학과), 정해은조합원(서울 시청각 교육원 제작과), 강호삼조합원(용인 도서관열람과), 김현호(연수원 교학과)씨 등은 지난 4월 4일(수) 오후5시 서울캠퍼스 본관 108호에서 열린 예비군 창설 22주년 기념행사에서 모범예비군으로 표창을 받았다.

학과움직임

◎아프리카어과 과회지 원고모집

동양학대학 아프리카어과 편집위원회는 4월30일(금)까지 과회지 「제4호 킬리만자로」에 실을 서평, 번역작품, 논문등을 모은다.

◎용인, 경제과 90학번 체육대회 열려

사회과학대 경제학과는 90학번 체육대회를 4월13일(금) 대운동장에서 개최한다.

동아리 소식

◎「모의 월드컵」 결승전 열려

서울캠퍼스 축구반 주최로 열린 「모의 월드컵」 결승전이 오는 4월12일(목) 대운동장에서 열린다.

◎용인, 손말 사랑회 이틀찻집 예정

용인캠퍼스 손말사랑회는 농아원방문을 목적으로 오는 4월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학생회관전시실에서 이틀찻집을 연다.

비둘기칠판

〈이문〉

모의 유엔총회 준비위원 모집

제4차 모의유엔총회 준비위원회에서는 올 가을에 전국적 규모로 열릴 모의유엔총회를 준비해나갈 준비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대생들의 우수한 비판력과 창조력을 함께 모아 남북대학생 학술교류와 조국통일의 주역이 되어보지 않으시렵니까?

- ·대상: 이문·왕산 외대인 모두
- ·하는일: 모의유엔총회 관련 제반준비 작업(정부접촉, 북한학우와 교섭, 학술연구 발표활동 등)
- ·접수마감기한: 4월30일(월)까지
- ·접수장소: 학생회관2층 모의유엔 사무실

—모의유엔총회 준비위원회—

상경대 1차 풍물 강습회

- ·대상: 상경대 전학우
- ·기간: 4월9일(월)~17일(화) (단 토·일요일은 제외)
- ·때: 오후 5시30분~7시
- ·회비: 2000원(신청은 상대실에)

상경대 학우여러분! 모입시다. 모여서 우리의 가락을 배웁시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상대문화부—

The Argus 수습기자 추가모집

The Argus에서는 이 땅의 어둠을 밝힐 제45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학생회관 2층 학생기자실
- ·원서마감 및 시험일자: 4월16일(월) 오후5시까지
- ·1차시험: 영어, 상식, 논문
- ·2차시험: 면접
- ·시험장소: 아거스기자실
- ·합격자발표: 4월17일(화)

—The Argus—

〈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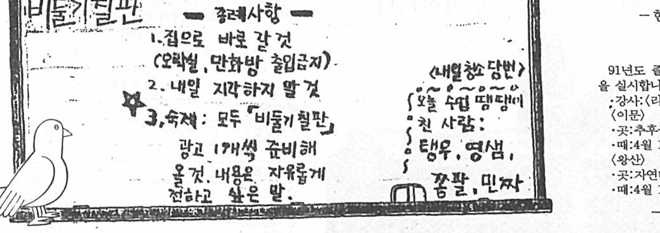
모두들 갑시다

『우리의 다정한 형, 형주형이 결혼한데요』

전 전대협 부의장 정형주(왕산제9대 총학생회장)씨가 결혼합니다.

- ·때: 4월15일(일)오후1시30분
- ·곳: 어문대 로비에서
- ·교통편: 오전 10시에 양재역, 또는 10시20분에 성남, 아니면 100—1번 버스이용

—왕산총학생회—



손말 사랑회

손말 사랑회에서는 농아원 방문기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이틀찻집 행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때: 4월12일(목)~13일(금), 오전10시~오후6시30분
- ·곳: 학생회관 휴게실
- ·왜: 「농아원 방문 기금 마련을 위한 이틀찻집」하기 위해

—손말 사랑회—

한겨레 사랑 모임

통일의 꽃 임수경대표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면회신청: 매주 목요일
- ·면회신청장소: 학생회관 324호 「한겨레 사랑모임」동아리방

—한겨레 사랑모임—

취업 정보 특강

91년도 졸업예정자를 위한 취업정보특강을 실시합니다.

- ·강사: 〈리쿠르트〉편집장

〈이문〉
- ·곳: 추후공고
- ·때: 4월 18일(수) 오후3시

〈왕산〉
- ·곳: 자연대 강당
- ·때: 4월 19일(목) 오후3시

—졸업준비위원회—

동문회

성동고

- ·안건: 4월 정기총회 및 MT 준비
- ·때: 4월13일(금) 오후5시
- ·곳: 이문동 시계탑
- ·회비: 36기 이하 5000원, 37기 이상 알아서 지참!

금정·내성

- ·때: 4월13일(금)~14일(토)
- ·예비모임: 4월11일(수) 오후5시 이문동 깡통

경동고

- ·때: 4월12일(목) 오후5시30분
- ·곳: 왕산 학생회관 식당
- ·회비: 5000원(90은 제외)

청량고

- ·때: 4월13일(금) 오후5시
- ·곳: 이문동 깡통
- ·회비: 5000원+α
- ·안건: 와보면 앎

수원공고

꼭 있을것만같은 동문을 찾습니다

- ·때: 4월14일(토)오후2시
- ·곳: 이문동 상징탑

〈이 광고란은 무료입니다. 외대인 여러분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광고문의: 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12호)

□수필

"어김없이 찾아온 4.19이날에"

4월의 흥분 그것은 4.19의거의 가슴벅찬 진동때문인가

정 지 영 〈법·법학2〉

올해도 어김없이 4월이 찾아왔다. 과연 4월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우리는 왜 다시 한번 4월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지? 그것은 바로 4·19의거의 가슴벅찬 진동때문일것이다. 독재에 대한 뜨거운 거부, 조국의 역사적 엄명이였던 4·19.

우리가 현재 대학인으로서의 양심을 온전히 가꾸어 갈 수 있는 것도 4·19의 은혜가 아닌가. 당시 대학인들은 부끄럽지 않은 양심의 소유자들이였다. 진리의 상아탑을 박차고 나와 압제적 지배와 민중수탈에 항거한 민주주의의 함생으로 뜨겁게 투쟁하였다. 폭압적인 독재정권의 유혈진압도 민주주의의 함성을 능가하진 못하였다. 그 결과 역사의 필연적 과정으로 독재 정권은 무너졌다. 세월은 흘러 30여년이 지난 지금도 4·19정신은 끊임없는 활화산이 되어 타오르고 있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누가 4·19정신을 억지로 계승시켜 왔단 말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그것은 대학인의 가슴에서 가슴으로 묵시적인 게시로서 면면히 이어 내려온 것이다. 그러면 4·19가 지니는 의미가 오늘날에도 살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의 각도를 조금만 돌려보자. 그것은 바로 「4·19당시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저 줄 것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시대의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그 기치로 한 「농민봉기」, 근세에 와서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수탈에 의연히 투쟁한 「3·1운동」, 그리고 가깝게는 독재정권의 항복을 받아낸 「6·10민중항쟁」등은 모두가 4·19의거와 역사적 맥을 같이 하는 일대의 의연한 투쟁들이었다. 특히 4·19는 오늘날 대학의 위치를 가르쳐 주는 상징적인 사건일 것이다. 4·19이후 박정희 군사쿠데타로 철저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열망은 커다란 타격을 보았지만 4·19는 대학인의 현실참여를 정당하게 인정하였으며, 기존보수 세력들을 크게 위협하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당시 못지않게 긴박하다. 보수야합으로 유신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으며, 지배논리 주입을 거부하고 참교육의 길을 밝힌 참교사들에 대한 탄압, 은폐 조작적 이데올로기에 마취되어 가고 있는 일부 대학인들. 우리는 대학특유의 예리한 지성으로 모든 사물을 본질적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시대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이 된다. 역사는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의 모순들은 더욱 큰 발전을 위한 전제적 상황인 것이다. 우리는 4·19라는 과거의 사건을 오늘날에 새로이 조명하여 다시 미래로의 길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4·19는 「4월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더워오는 가슴, 4월은 이제 연연히 이어온 우리 젊은이의 가슴을 또다시 진동시키고 있다.

자유에 대한 영원한 바램, 민주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 바로 4월 19일의 아침 되살아나는 가슴벅찬 진동의 목소리가 그것인 것이다.

올해 4월에는 미네르바 동산의 진달래가 4월영령들의 뜨거운 피와 같이 짓붉게 피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그날의 「4·19선언문」중 일부분을 소개한다.

『……양심은 부끄럽지 않다. 외롭지도 않다. 영원한 민주주의의 사수파(死守派)는 영광스럽기만 하다. 보라! 현실의 뒷골목에서 용기없는 자학(自虐)을 되씹는 자까지 우리의 대열을 따른다. 나가자! 자유의 비밀은 용기일 뿐이다. 우리의 대열은 이성과 양심과 평화, 그리고 자유에서 열렬한 사랑의 대열이다. 모든 법은 우리를 보장(保障)한다.』

—서울대학교 학생일동 「4·19선언문」중에서—

주제글 모음

4월 그 가슴으로

외대학보에 「주제글 모음」 첫 공고가 나가던 날만해도 아직 이문동과 왕산의 교정에서 봄은 상상도 못할만치 모두가 두터운 옷의 종종 걸음들 뿐이었다.

4월 그 가슴으로… 하지만 우리 가슴속엔 이미 더운 4월의 가슴이 오고 있었다.

기다림과 흥분됨.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4월은 그저 새땅에 초록이 돋는 나릇한 봄날로만은 기억될 수 없는 너무나 가슴벅찬 역사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역사의 그 날을 되살리고, 역사의 그 봄을 앞당기고자 작은 원고뭉치를 옆에 끼고 외대학보를 찾았던, 또는 소중한 원고를 깨끗이 정서해 우편으로 보내주셨던 외대학우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비록 지면 한계상 5편의 제한된 수만 실렸지만 참가해 주신 이 모든 더운 4월의 가슴들이 외대의 봄을, 역사의 봄을 앞당겼음이 틀림없다.

□수필

"4월 그녀는…"

엄 복 현 〈서학·포르투갈어3〉

겸손하고 포용력있는 계절 4월, 우리 주변의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작은것들을 감싸는 계절이 되어야

4월 그 가슴으로, 사라져 없어지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지성인이 되자! 4월의 가슴은 차갑다! 그것은 마치 저멀리 남극 해(海)의 거친 물결만큼이나 섬짓할 정도로 냉정하다.

4월의 다가오는 소리는 더욱 요란하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무서워 스스로 전율을 느낄 만큼의 소음을 낸다.

그리고 지구위의 전부가 4월을 향해 주시하면서부터 그녀 스스로 자만해지기 시작한다. 때때로 도도하게 거리를 확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자신이 거만해지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새롭게 거듭나고 싶어한다. 만일 그 누군가가 한마디 외침으로 『4월!』하고 강하게 내뱉는다면 그는 금방 4월의 맹목적인 노예가 되고 말리라.

또한 4월은 자신 이외의 다른 계절을 학대하는 새디즘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른 계절을 생각할 겨를도 주지않고 4월은 불쑥 몸을 내밀어 봄을 자신의 계절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4월은 그로인해 얻어지는 기쁨을 즐기려 한다. 4월의 태양은 3월의 태양보다는 더 희푸르고, 5월의 그 것보다는 덜 연푸르다. 3월이 겨울의 싸늘한 빛을 미련때문에 붙잡아두려 한다면, 5월이 여름의 뜨거운 해를 성급히 맞이하려 한다면, 4월은 진정한 봄의 다사로운 햇살을 그녀의 가슴에 품으려 한다. 그러기에 그녀는 점점 더 아름다와지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런 4월이 좋다. 자기 이외의 다른 것들을 외면해 버리려는 4월 속에는 이미 외면당해버린 사라져 없어지려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4월은 잔인하다고 하였던가? 그러한 완곡한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4월은 이미 우리들의 가슴속에 신선한 기대감의 대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4월의 가슴은 따뜻하다. 겉으로 보기엔 차가울지 몰라도. 그 가슴 속에서는 사물의 생성과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을 볼 수 있다. 온통 새로움으로 인해 그동안 이미 존재해 오던 것들이 사라지고, 동시에 그녀의 가슴 속에는 그런 사라지는 것들을 소중히 감싸고 있기에 4월은 더욱 마음씨 고운 계절이다.

조금 더 따뜻해진 공기의 흐름, 조금 더 숨을 내쉬는 대지의 모양, 조금 더 푸르러진 산의 형상, 조금 더 맑은 소리를 내는 계곡의 물줄기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어린 소녀의 밝은 미소.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4월은 더욱 더 자신의 등장에 대해 정당화하려 한다. 4월 보다는 오히려 3월과 5월이 자만해지기 쉬운 계절인 것 같다. 왜냐하면 3월은 그 기나긴 겨울에서 탈출해 새로운 계절을 만든다고, 그리고 5월은 뜨거운 태양과 생동감 넘치는 계절을 만든다고 바뻐 서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4월은 너무나 겸손하고 포용력 있는 계절인 것이다. 우리들의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감쌀 줄 알며, 부(否)를 정(正)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지성인.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4월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막연히 4월의 문을 두드리기엔 그리 쉽지만도 않은 일. 조심스레 문을 두들겨 보고 혹시라도 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같다. 쉽게, 편하게, 대충 어림짐작으로 4월의 가슴팍의 넓음을 알고 이해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같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통념보다 다른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접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작정 시간이 흐르는 데로 좇아가 만나는 계절이 아닌 진정으로 각자 자신들의 마음 속에서 그리던 봄을 맞이해야 한다.

4월의 봄은 넓다! 어떤 의미에서 「넓다」라는 표현을 빌어 썼는지—수사법상의 한계가 있었겠지만 —글로 설명하기가 다소 어려울 듯하다. 4월과 직접 접하여 그것과 어울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점점 넓어짐을 경험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생명없음을 가엾게 여겨 한송이 꽃을 피우려는 생명체에 대한 강한 신념. 이것 하나만으로도 4월은 의지의 계절이 되기에 충분한 것같다. 그러나 피어오르려는 생명력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기 쉽다. 아니 점차 도도해지는 것이다. 그 도도함이 자꾸 커져 나중에는 푸른 색의 슬픔을 만드는 것이다. 계절의 특성상 가을이 사색과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이성적인 계절이라고 본다면, 봄 또한 생명력 강한 의지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자각의 계절」이 아닐까.

4월, 그 넓은 가슴으로 우리들 주변에서 사라져 없어지는 —모든 빛을 잃어가는 —작은 것들을 발견하고 소중히 생각할 줄 아는 지성인이 되어 보자! 그리고 바르고 더 나은 것을 위해 자기 스스로는 기꺼이 희생될 수있는 정신과 그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들을 소중히 기억할 줄 아는 인간미(人間美) 가득한 지성인의 전당에 새봄에 향기를 불어넣어다.

4월 그 넓은 가슴으로……

□시

"4월의 꽃넋"

유 은 걸 〈서학·폴란드어2〉

벗들
4월에 피는
진달래는
한이 많은 꽃이오
아직도
한이 풀리지 않아
더욱 붉은 꽃이오
4·3항쟁때 죽고
역사의 왜곡으로 다시 죽은
10만 넋 들이
한 풀이를 호소하는 꽃이란 말이오

벗들
단독 선거를 강제한
미제의 신 무기 앞에.
피로서 일어나
한라산을 물들이던
그 날의 함성 들어보오

벗들
갈라선 땅
조각난 하늘
그리고
침묵하는 4월에
남과북을 의식않고
봄과 함께 찾아와
지천으로 되살아 나는
10만 꽃 넋 들을 보오

벗들
서울 한 복판에도
진달래가
피어나는 꿈을 꾸오
어머니 같은 내 조국
더이상
양키에게 겁탈당하고
형제끼리 죽이고 죽는
내일이 될 수 없기에…

보오!
진달래가 온 땅을 뒤덮는 모습

백지 대자보

자식, 중후하게 늙는구만! —Th.90—

가장 원론적인 것이 때론 정석일 수 있습니다. 정론직필의 영원한 파수꾼이기를…. —세인트(SAINT)—

외대에 뭐 자랑할게 있어야지, 학보밖에 쩝쩝. —이문벌 남아—

이 땅 구석구석의 작은 목소리를 모아 세상에서 가장 크고, 곧은 목소리로 외칠 수 있는 외대학보이기를 —목소리 큰 여학우—

주제:35살 외대학보에게

학보는 학우에게 읽혀질 때만이 학보라고 불리울 수 있다. —류—

내가 서른 다섯살이 되는 해에 대아들은 평양에 있는 통일유치원에 다닐거요. —분단총각—

생일 축하해요. —독자—

외대학보 35살 중년 나이, 민주화의 활화산으로. —갑—

참여의 폭을 넓혔으면. —왕산 학우—

다음 주제「부활하는 4·19」입니다.

□시

"고(故) 이재용열사를 기리며"

이 구 용 〈서학·영어4〉

그대향한 그리움이 사무치도록
이 내 가슴을 휘 젓는다.
무엇이 그리도 못마땅하여
통한을 남긴채 먼저….

삼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
그대 모습은 간데없고, 어찌 이 차디찬 돌덩이만 서있단 말인가.

살아서 다시 보자며 내던진 그 한마디가
죄가 되었다면 나는….

그땐 그리도 좁아 보이던 이 민주광장이
오늘은 왜 이리도 넓은 것일까.
봄은 벌써 왔다고 하는데 여긴 왜 아직도
찬바람 흙먼지가 몰아치고 있는 것일까.

당신의 모습은 아직도 내눈에 선명한데
어찌 그대 눈에는 내 모습이
비치질 않는가.
그대 편히 잠들게나
이 타오르는 정열로 얼어붙은 그대의 몸
녹여 드리외다.

그대여!
「4월 그 가슴으로」들어와
영원히 우리와 더불어
짙은 분홍빛 진달래로 피어 주게나

고(故) 이재용열사 추모비 앞에서.

□편지글

"벗에게"

외세와 독재의 음흉한 미소앞에 4월은 더이상 미완으로 남을 수 없어

류 계 환 〈서양·독어4〉

벗에게

『이젠 우리 폭정에 견딜 수 없어 자유의 그리움으로 분노를 뱉는다. 아! 총탄에 뚫린 4월 그 가슴위로 넋되어 허공에 출렁이는 아 자유여 만세!』

친구야 진짜 오레간만에 펜을 들어 소식을 전한다. 그동안 몸은 건강하고 하는 일은 잘되는지 모르겠구나. 총학생회장이 되었다니 더욱 힘들어질텐데. 멀리서 소식전해 듣고 기뻤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이곳저곳에서 60년 4월을 추모하고, 기념하고, 계승하는 난리법석을 떨겠지. 너 또한 무척 바쁘겠기. 하지만 난 이번 4월이 조금 두렵다. 4월 혁명을 배신하고 돌아선 몇사람들의 이야기를 잡지를 통해 읽고서 왠지 우리의 앞길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친구야 30년전 반도남녘 곳곳에서 폭도로 몰려 총탄에 쓰러져간 청년들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가 시간이 30년이나 흘러버린 오늘 다시 불리워지고 참혹하리만큼 처절한 고통과 번민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한 역사의 순환인가, 순진무구한 대학인의 감상인가, 아니면 뼈와 살로 스미드는 일당독재 공안통치의 칼바람인가.

강산이 변했어도 몇번이나 변해야 했을 이땅에 주인이 아직도 외세이며, 허수아비 대리정권뒤에 대사라고 불리우는 신임총독의 음흉한 미소를 보며 4월은 더이상 미완으로 남아선 안된다고 다짐한다. 전세값 폭등, 수입개방으로 목메는 힘없는 민중이 있는 한 결국 4월은 밟고 쓰러린 잔인한 4월로 남을 수 밖에.

진달래 지천으로 핀 4월 친구의 건강을 기원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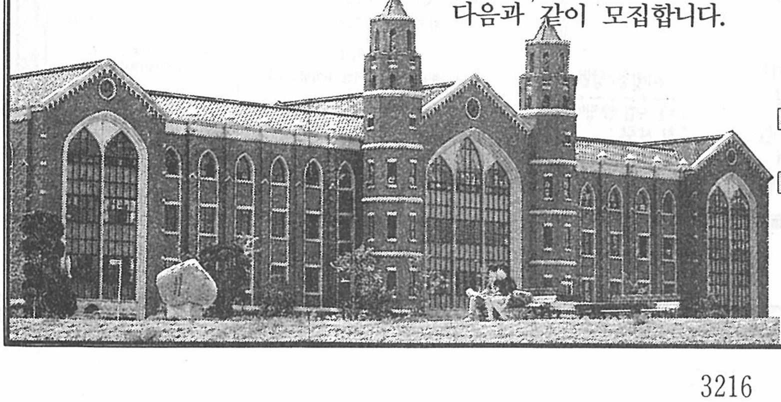
통일염원 46년 4월8일

추신:경희대에서 열리는 전대협총회가 부디 무사히 치루어지길 바라겠다.

1990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eoul Korea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하계대학 학생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동포 및 외국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하계대학을 개설하여 한국어·한국문화를 수강할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1) 일시 : 1990년 6월 25일(월)~8월 10일(금) 7주간
2) 장소 : 본 대학교 한국어 문화연수원 및 기타 부속 시설

2. 개설과목

○한국어(필수과목, 주당 20시간)……………… 3학점
○한국학(선택과목, 한국문화·한국예술) ……… 2학점
(〃 한국사·한국현대사회) …… 2학점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해 입학생에게 배치고사를 실시, 한국어 이해능력에 따라 반편성(초급, 중급, 고급)을 하여 수업을 진행함.

3. 특별활동

한국 고전무용, 서예, 태권도, 문화유적답사, 산업시찰 및 다양한 행사계획이 있음.

4. 등 록 비

1) 입학전형료 ……………………… $ 37
2) 수업료(2과목/3과목) ……………… $686/$835
3) 기숙사비 ………………………… $694
4) 교재대 …………………………… $100
5) 보험료 …………………………… $ 16
6) 수학여행비☆ ……………………… $328
(☆는 선택사항을 나타냄)

5. 입학전형

1) 입학자격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과 해외동포로써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2) 입학신청 : 입학원서, 입학전형료($37), 사진(4cm×5cm) 3매.
3) 입학원서 교부 및 신청
자세한 문의는 다음주소로 할 것.

Seoul Campu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ffi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270 Imun-dong Dongdaemun-gu
Seoul 130-791, Korea
Tel. (02) 963-7331 FAX.02) 960-7898

Yongin Campu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ternational Summer School
89 Wangsan-ri Mohyun-myon Yongin-gun
Kyongki-do 449-791, Korea.
Tel.0335) 33-1714 FAX.0335) 33-1708

4) 입학신청 마감일 1990년 5월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